

코리안 뉴스위크

2017년 12월 15일(금)

www.facebook.com/korean.newsweek

Korean Newsweek

30 Brises du Fleuve #1006, Montréal, Québec H4G 3M7
Tel: (514) 993-2121 e-mail : knewsweek@gmail.com

No.1086

Canada Life
조용휘
T: 288-7979/C: 898-5727
카나다라이프
Mutual Fund RRSP
생명, 교육, 상해보험, 단체, 은퇴연금

황금하우스
안창살, 순대국, 감자탕, 왕갈비
L.A. 갈비, 파전, 족발 등등
5908 Sherbrooke West
TEL: 514-487-1712

몬트리올
한인 골프스쿨
개인, 그룹 가족/ 초보-고급까지
박영식 : 438-321-3243
montrealkorangolf@gmail.com

영양 돌솥밥
La Maison de **SEOUL**
내장탕 순두부 돌솥비빔밥
술을 가져와서 드세요~
5030 Sherbrooke W. (489-3686)

자동차, 주택, 상업보험
생명, 단체, 유학생, SuperVISA, 방문, 여행
yjung@racinechamberland.com
514-575-0836
한국어 서비스
ASSUR SOLUTION 4001 Cremazie E.#100
Cabinet de services financiers MTL QC. H1Z 2L2

IMMO SUPERIEUR
부동산 정민수
514-913-4288
만나면 만날수록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사람
부동산과 모기지를 한국에서, "One Stop Service"

VOYAGES **BARO BARO**
한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 되는 곳...
바로바로 여행사
(514) 939-1237
2075 Blvd Robert-Bourassa # 1207

황치과
Dr. George J. Hwang
Chirurgien Dentiste/Dental Surgeon
ATWATER 근처
(514)933-1110
4060 Ste. Catherine W. Suite 515
Westmount, Qc. H3Z 2Z3

TD Canada Trust
예금, 적금, 송금, 대출,
뮤추얼펀드, 교육적금, RRSP
6100 Sherbrooke W.
N.D.G 지점 H4A 1Y3
(514)481-3767 (한국어서비스)
한국식품 건너편
월~수: 8:00~18:00, 목, 금: 8:00~20:00
토요일: 8:00~16:00

서울미용실
월-목 : 10시-6시
금 10-8시, 토 10시-5시
(일요일은 휴무)
5705 Sherbrooke W.
514)369-0727

레스토랑 북
한국식 중화 요리
438.385.7333
5461 Rue Sherbrooke O

부동산
제2의 도약을 위해
groupe sutton과 함께
행복만들기를 계속합니다
Sutton
서정협 e-mail jsuh@sutton.com
real estate broker O: 514-769-7010
C: 514-244-0751

퀘벡주, 낙태약 12월 15일부터 공식 허용

임신 9주까지 사용 허용, 수술통한 낙태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

지난 11월 13일 퀘벡의사당에서 개
판 바레트 보건부장은 "퀘벡주에
서 낙태약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
며 약값은 의료보험으로 처리되므
로 무료다.

그 동안 퀘벡주 의회는 의과대학
과 약사회를 중심으로 낙태약 허용
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

사용이 허용된 낙태약 "미페가이미
소(Mifegymiso)"는 일반적으로 "낙
태약"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임신
9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
인 정보가 의료진들에게 배부되었다.

이 약을 원하는 여성은 우선 의사
를 만나야 한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와 자궁의 상태를 검사하고 정상
적으로 임신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자궁외 임신등에는 이
약을 사용할 수 없고 수술을 해야
만 한다.

또한 당사자가 원한다면 집에서 스
스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약은 피임약 "모닝-애프
터 필"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모닝 애프터 필은 피임약에 들어
있는 합성호르몬을 고용량 함유한
약으로,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신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흔히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페가
이미소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유산을 유도하는 미페가이미소
와는 달리 사후피임약은 이미 난자
가 자궁에 착상했다면 임신을 끝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임하지 않고 성
관계를 나눈 후 24시간 내에 복용해
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다.
미페가이미소는 "약을 통해 낙태"
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
수적으로 필요하며 사용후에도 의
사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다. 왜냐하
면 후유증이나 출혈등이 따를 수 있
기 때문이다.

바레트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의

료 상담자는 임신 당사자가 낙태를
결정함에 있어 어떤 영향도 주어서
는 안되며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
록 해야하며,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적 압력이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낙태약의 사용에 대해 "이는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하
나 늘어난 것이다. 여성들은 원하지
않은 임신을 위해 수술하는 것을 피
할 수 있어 "사생활"을 보호하는 계
기가 마련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바레트 장관은 "우리는 이 약의
사용에 대해 그간 심사숙고 해 왔
으며 이번 결정은 퀘벡주 환자들에

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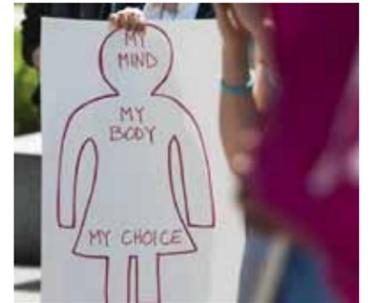
퀘벡 정부는 또한 이 약의 비용
이 의료보험으로 처리됨에 따라 "
주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강
조했다.

왜냐하면 약을 사용함으로써 낙태
수술을 줄일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
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페가이미소는 지난 2015년 캐나
다 보건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BC, 온타리오, 앨버타, 노
바스코시아 주 등이 무료로 이 약을
사용했으며 수술에 비해 훨씬 비용
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납세자들에게
도 장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일부 낙태가 허용되지 않은
주에서 사는 여성들은 낙태를 위해
장거리 여행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
도 있었지만 이런 여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약은 프랑스와 미국등을 포함해
약 60여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LE PET TOWN
www.lePetTown.ca
애견미용-용품
한인경영
514-641-7387
4555 St-Charles, Pierrefonds, QC

春屋 Furniture and Décor
새가구 알뜰장만 Decor추석
Email: customerservice@cheonuk.com
카탈로그 구매상담 가능/ 오피스가구 특별할인
전화 : 888-688-3881 리디아
WWW.CHEONUK.COM

헤어Q
무료주차 Guy
전화 994-0675
1616 Ste-Catherine O. 2층

로젠택배
고국에 우체국보다 싸고 신속히 보내드립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 전제품
아사이 베리, 오메가 3 골드
셀렉스-C, 최초 몬트리올 아토티센터
6151 Sherbrooke St. W. MTL
(514)487-5104 한국식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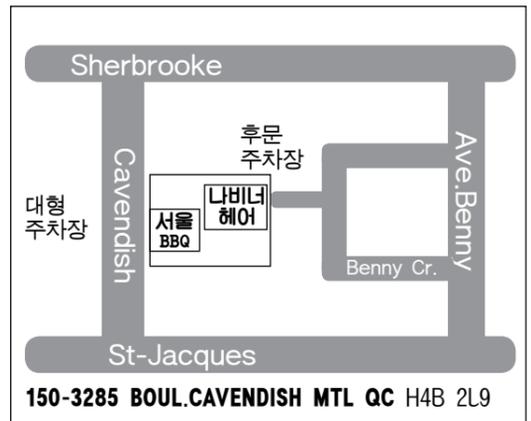


(구)HUN 헤어 카톡주소 : navino4884

나비너 헤어 Navino Hair

영업시간
월 ~ 금 : 오전 10시 ~ 오후 7시
토 : 오전 10시 ~ 오후 6시
일요일 : 휴무

<주차안내>
미용실 뒷편 주차장
Cavendish 건너편 대형주차장



예약전화
514-225-4714
514-995-4714



CINÉASIE
CREATIVES

To become "KFF Supporters!"
서포터즈가 되어주세요~

캐나다 한국영화제

www.koreanfilm.ca

514-799-6880

한국영화와 함께 한

20년 전통

www.cine-asie.ca



korean film festival
c a n a d a

코리안
뉴스위크

30 Brises du Fleuve #1006,
Montréal, Québec H4G 3M7
Tel: (514) 993-2121
knewsweek@gmail.com

오늘의 외환시세

12월 15일 매매 기준율

캐 나 다 화 : 854.24원
미 화 : 1089.50원
1 CA\$: 0.7841 U.S
1 US\$: 1.2754Can

한인라디오
90.3FM
VOKO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www.ckut.ca

加, 북핵 '평화적 해결' 팔 걸었다 쿠바 경유 대화 창구 개설 시사



캐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캐나다는 이르면 내년초 오타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및 한국전 참전국 외무장관들을 초청해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크리스티

아 프리랜드 연방외무장관은 지난주 말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외교와 경제적 압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시험발사한 화성 15호 미사일이 북미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현 단계에선 의문시 된다"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는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프리랜드 장관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시스템(MD)에 캐나다도 동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캐나다는 1980년대 중반 불참을 선언했으며 이후 역대 정부가 이 정책을 고수해 오고 있으나 보수진영은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 군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가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공격을 당할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나탄 밴스 캐나다 합참의장은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미국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지난달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쿠바를 통해 외교적 접근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쿠바를 중간 경로로 북한에서

방측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리랜드 장관은 "캐나다는 쿠바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 쿠바가 북핵 위기의 중재자로 나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외무성 관계자는 "캐나다는 북한과 수차례 접촉해 임현수 목사 석방을 성사시켰다"며 "대화를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미사일 위기도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캐나다는 이를 위해 중재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타와 외무장관회의에 대해 "경제 제재를 통해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캐나다는 바라보는 북한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편"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판 안아키' 자연치유 고집, 아들 결국 사망



캐나다에서 아픈 어린 아들에게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대신 자연치유를 시도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캐나다 앨버타주(州) 고등법원에서 4년 전 아픈 어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마라 러벳(48)은 지난 1월에 이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크리스틴 아이즈빅 판사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아났을 한 생명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러벳의 아들 라이언(7)은 지난 2013년 3월 2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러벳이 주는 민들레차와 오레가노 오일 등을 먹고 침대에만 누워있었고 결국 열흘째 거실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러벳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러벳은 1심 재판 당시 "아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들은 림프샘이 부어 귀에 고름이 넘쳐흘렀고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났으며 연쇄상 구균을 원인으로 한 인두염과 수막염, 폐렴을 앓아 장기 부전에 빠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었다.

러벳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겠다. 무지한 내가 한 그런 일을 제발 다른 부모는 아이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2주 사귀 남친과 이별 후, 2만 7천번 전화한 집착녀?



BREAKING STORY
WOMAN ARRESTED FOR CALLING HER EX-BOYFRIEND
27000 TIMES IN A WEEK!!!

"사랑했었다. 그래서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착했던 것 같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더커버리지는 단 2주간의 만남을 이어온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 받은 여성 켈리 머피(Kelly Murphy, 28)가 일주일 동안 전화 2만7천통을 넘게 걸며 무서운 집착을 보여줬다며 보도했다.

캐나다 알버타주에 사는 켈리는 남자친구 랜디 윌리엄스(Randy Williams)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만남의 시간을 가진지 2주밖에 안된 사랑이었지만, 그녀는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렇게 랜디는 이

별을 통보 받은 날부터 집착을 시작하게 됐다. 켈리는 일주일 동안 무려 2만 7000여 통의 전화를 걸었고, 937통의 이메일, 1만 1,229개의 문자 메시지, 117개의 음성 메시지, 47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휴대폰 8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에너지드링크까지 마시며 24시간내내 전화를 하는 무서운 집착을 보였다.

켈리의 집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랜디는 우울증에 걸릴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국 랜디는 참다못해 켈리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는 스토킹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게 됐다.

제임스에듀

기초전문 / 4명 미만 소수정예 / 원장직강 책임지도

겨울이벤트

불어(테파크준비)왕기초

1월 10일 ~ 4월 27일

수, 금 4 ~ 6시

\$900 > 10% DC \$810

(March break 휴강)

스노우던역 옆 메트로슈퍼 2층 204호
Snowdon 5115 Trans-Island suite 204 Montreal H3W 2Z9

T.514.770.7161 JamesEdu

온누리교회 제1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오는 12월 23일



안수현 선생님의 지휘와, 이윤희, 조필립, 신선이 선생님의 지도로 준비되었고, 다양한 솔로 연주와 초청 연주가 진행된다. 동시에 온누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림 전시회도 있을 예정이다. 연주회 관람은 무료이고, 참석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드디어 새하얀 눈으로 웃입는 12월이 왔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음악과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주한 사람들을 향하여 울려 퍼진다.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쁜 소리는 우리의 삶에 원동력과 소망이 된다.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림같은 추억을 간직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께 권한다.

12월 23일, 다운타운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제 1회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한다.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알리는 크리스마스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음을 정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이벤트이다.

‘캐나다 그랑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켄트 나가노의 몬트리올 심포니의 연주’와 같이 유명한 공연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풋풋한 열정으로 일궈낸 음악회이다. 그런 만큼 바쁘고 지친 우리의 삶에 여유와 미소를 가져다줄 것이라 기대한다.

W.A Mozart, B. Bartok, R. Schumann, A. Piazzola, F. Mendelssohn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롤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몬트리올에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며...

일시: 2017년 12월 23일 저녁 7시30분
장소: 2154 St. Catherine w. H3H 1M7 Light house (삼차 레스토랑 옆, 불고기 하우스 맞은편)

부유층 밀레니엄세대 ‘상속’ 대박 베이비부머 33% “재산 대물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를 자녀들에서 물려주기 시작했다”며 이에 따라 밀레니엄 세대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밀레니엄세대가 부모인 베이비부머세대로부터 엄청난 재산 대물림을 받아 주택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 등 국내 4대 도시의 베이비부머(52~71세)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3%가 다음세대에게 재산을 이미 상속해 주었거나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응답자중 36%가 이같이 답했으며 토론토와 몬트리올은 각각 35%와 27%에 달했다. 앞으로 3년에서 10년안에 상속해 줄것이라고 밝히 응답자들은 자녀들의 집 장만을 돕기위한 것이

부동산 중개 전문사인 소더비스 인터내셔널 리얼티 캐나다(SIRC)는 5일 보고서에서 베이비부머세대의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은 일인당 18만달러 상당의 총 7천5백억달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은퇴를

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소득 10만달러 이상 베이비부머의 49%가 자녀들의 집구입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부유층 가정의 밀레니엄세대는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거액의 상속을 받았거나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부의 불공평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전국부동산협회는 “연방정부는 은퇴저축(RRSP)을 만기 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측은 “밀레니엄세대는 비싼 집값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모세대의 RRSP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캐나다, 여권 거래 시장의 온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시민권 거래 시장을 캐나다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연방정부와 미국, 유럽연합(EU) 당국자들은 이같은 행위가 자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아, 중동의 부유층들에게 알선하는 중개사업에 캐나다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돼 있으며 한해 수십억불의 돈이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은 별도의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북미 또는 유럽을 오가기 위해 소위 돈으로 타국가의 시민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영 CBC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을 비지없이 입국할 수 있는 일부 국가들의 시민권을 중국, 러시

이들 중개인들은 일부 부유층들이 자금을 투자하면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들을 소개하거나 또는 일부 국가들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 신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부유층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시민권 거래 행위가 범죄자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또한 비자면제 국가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시 : 2017년 12월 23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몬트리올 온누리교회 2154 St. Catherine W. H3H 1M7 (the light house)

주최 : 온누리교회 오케스트라 (Tel. 514-815-0691)


지휘 | 안수현
코치 | 조필립
코치 | 신선이
코치 | 이윤희


Fl. 방은빈
Vc. 이세리나
Cl. 윤영로
Ten. A.VIERA
Cl. J. WOSZCZYK

온누리교회 오케스트라

제 1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캐나다 가구들 평균 29만 5천 달러 자산 소유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캐나다 가구들의 평균순자산은 295,100달러로 2012년에 비해서 14.7퍼센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집이며 또한 가장 큰 빚도 역시 집인 것

로 밝혀졌다. 2016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인들이 보유한 전체 자산의 규모는 12조 달러로 2012년의 9조 9천억 달러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들이 소유한 전체 자산의 평균액수는 440,200달러로 2012년의 391,700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캐나다인들이 보유한 부채의 규모는 2016년을 기준으로 1조 7,600억 달러로 2012년의 1조 4,100억 달러에 비해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구들이 보유한 평균부채규모는 80,600달러로 2012년의 63,400달러에 비해서 1만 7천 달러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또한 캐나다 가구들 중에서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율은 29.6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가구의 경우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율이 58퍼센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몬트리올 콘도 판매 사상 최고 신기록 수립

광역 몬트리올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 몬트리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11월에 또 다시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협회에 의하면 11월은 특히 콘도 판매량이 월간 기준으로 11월 역사상 최다판매 신기록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나 콘도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1월에 몬트리올 지역의 부동산거래량은 12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콘도의 경우 판매량이 1,137가구로 일

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23퍼센트나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볼 때 광역 몬트리올의 북부외곽 지역과 몬트리올 아일랜드의 남쪽 지역의 콘도들은 각각 53퍼센트와 33퍼센트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몬트리올 부동산협회의 마티우 코시뉴 회장은 2년 전에 과잉공급 상황을 보였던 많은 콘도들이 이제는 모두 판매가 완료됐다고 말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자 위주의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1월에 판매된 전체 주택의 수는 3,348가구로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달린 여성 운전자 기소

규정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하지만 최근에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규정속도보다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차를 몰았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기소되는 흔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타와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규정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나 낮은 속도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온타리오중 동쪽의 하이웨이 401에

서 발생했다. 온타리오 주경찰에 의하면 지난주 수요일 밤에 해당 고속도로의 동쪽으로 향하는 차선에서 시속 40킬로미터의 저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의하면 이 차량은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1차선 추월차선에서 하이빔을 켜 채 이와 같은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이 도로의 규정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인 줄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47세의 이 여성운전자는 불필요한 저속운전을 한 혐의와 교통신호를 따르지 않은 혐의, 그리고 보험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인해 기소됐다.

코리안 뉴스위크
몬트리올 514-993-2121
오타와 613-254-9049

국내은행들, “경제불황?그게 뭐” 올해 420억불 고수익



캐나다 시중은행들이 올해 막대한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바가지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시민단체인 ‘데모크라시 워치’에 따르면 로열뱅크와 CIBC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올 한해에 모

두 42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보너스로 지난해보다 11%나 늘어난 143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데모크라시 워치’ 관계자는 “은행 고객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서비스와 직원 감원 등을 통해 이같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나서 이같은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올해 북미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특히 미국 지사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몬트리올은행측은 “미국의 허리케인 사태로 영업수익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9%나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모크라시 워치’ 관계자는 “경제 성장세를 내세운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시중은행들은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계속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경우 최근 은행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도 이를 뒤따라 진상을 조사해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영국 정부는 은행들의 부당수 수수료 관행을 적발해 30억달러의 벌금을 징수했으나 캐나다는 2001년 이후 1백7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데모크라시 워치’측은 “연방정부는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해 시중은행들에 대해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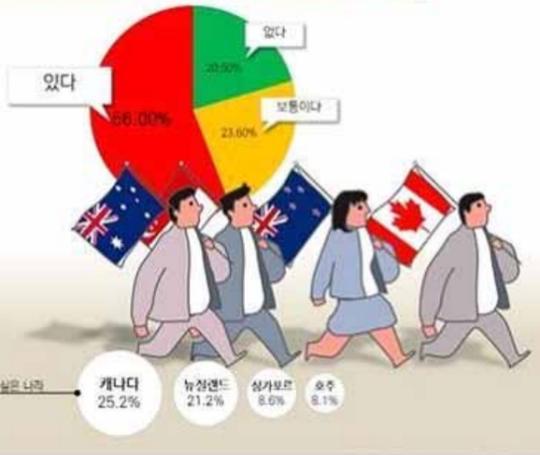
2018년 한 해에도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Merry
christmas

MK 치과
12월 23일부터 2018년 1월 7일은 휴무입니다.

캐나다, 한국인 이민 희망지 1위 의료-사회안정등 복지 인프라 꼽아

이민 성공 시, 대한민국 국적 포기 의향이 있나요?



‘살면서 이민을 꿈꿔본 적 있습니까’란 질문에 54.3%가 ‘있다(꿈꿔왔다)’고 답했다. ‘없다’는 31.6%, ‘잘 모르겠다’는 14.1%로 조사됐다.

이민 희망 나라는 캐나다(25.2%)가 1위로 꼽혔다. 이어 ▲뉴질랜드(21.2%) ▲싱가포르(8.6%) ▲호주(8.1%) ▲스위스(7.6%) ▲스웨덴(5.5%) ▲미국(5.4%) ▲독일(4.2%) ▲일본(3.9%) ▲노르웨이(3.6%) 등의 순이었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를 결정하는 기준은 의료시스템, 주거설비, 치안환경 등 ‘생활안정 인프라’(55.3%)를 첫손으로 꼽았다. ‘이민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35.0%가 ‘약간 있다’, 21.0%가 ‘매우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전혀 없다’는 5.1%, ‘별로 없다’는 15.4%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의 성인 절반 이상이 이른바 ‘헬조선’에 공감하며 이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을 갈 경우 희망국은 단연 캐나다가 꼽혔다.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설문조사기관 두잇서베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회원 등 성인 37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헬조선이다’라는 말에 62.7%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14.2%에 그쳤다.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설문조

스트레스 테스트, 10명중 2명 ‘눈물’ 모기지 대출규정 완화 주장 ‘목소리’



내년부터 집 모기기 규정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이로인해 대출탈락자가 속출하게돼 심사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1월1일부터 대출 신청자는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새 기준을 적용받아 상환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권이 제시하는 모기지율보다 2% 정도 높은 이자율을 근거해 소득에 비해 월 상환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5일 전국모기지전문가협회(MPC)는 “대출 신청자 10명중 2명꼴이 거부를 당할 것”이라며 “이

는 집 구입 희망자 5만여명이 은행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걸쳐 모기지 브로커 등 1만 1천5백여명이 소속된 이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금리보다 2% 높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가상 이자율을 0.75%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권의 평균 모기지 이자는 2.96%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사태가 발생하자 이후 모기지 규정을 한층 엄격하게 조정해 왔다.

연방재무성은 지난해 10월 다운페이 가 구입가격의 20%로 미미한 대출 신청자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엔 이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거래되는 주택은 평균 70여만채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 실태를 근거할때 내년부터 대출 신청자들중 18%가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라고 “10만여명이 집장만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중 절반인 5만여명은 제2금융권과 사채 시장을 통해 대출을 받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스트레스 테스트 자체는 바람직한 발상이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특히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겨울 독감 백신 효능 ‘경고등’ 전문가 “예년보다 떨어질 것”



올 겨울 독감시즌을 앞두고 백신 효능이 이전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미에 걸쳐 올 독감시즌이 예년보다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개발된 백신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호주에서 모두 21만 5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들중 대부분이 ‘조류독감’ 케이스였다”고 밝혔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A,B,C형 3종류로 분류되며 이중 조류독감(H3N2)인 A형이 가장 독하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 겨울엔 H3N2형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기존 백신은 접종을

받는 10명중 1명꼴에게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어린이와 노인 및 평소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은 올해도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 전문가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겨울 기간 65세 이상 노년층중 독감 사망자가 급증했었다”며 “모든 종류의 독감에 효과가 있는 단일백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보건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에서 모두 2천여명의 환자가 확인됐으며 온타리오주 남부와 알버타주 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군내 성범죄로 29명 퇴출, 83건 조사중



올해 들어 캐나다 군(軍) 내에서 성범죄로 29명이 퇴출됐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국방부가 올해 실시한 군내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를 이같이 전하고 퇴출 조치와는 별도로 83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

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0명은 퇴출은 면했으나 견책이나 보호관찰, 강제 상담 등의 조치에 처해졌다.

앞서 조너던 밴스 합참의장은 지난 4월 군내 성적 일탈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여 혐의와 법원 판결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 성범죄 일소를 다짐했다.

밴스 의장의 강경 대응은 군내 성범죄가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 잇따른 데 이어 2015년 독립적 실태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 이를 확인하면서 나온 특단의 대책이다.



MERRY CHRISTMAS EVENT



ORDER A CHICKEN AND GET A FREE SAPPORO



Until 25 December

**1184 Bishop Montreal H3G 2E3
Tel. 514-700-3010**

일본 고등재판소 “이카타 원전 가동 중단”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에히메현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고 13일 일본 언론이 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고등법원에서 원전 가동 중지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전 재가동을 향해 나아가는 아베 신조 정권의 원전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이날 히로시마 주민 4명이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제기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등재판소는 원전에서 130km 떨어진 구마모토현 아소산에서 사상 최대 분화가 일어날 경우 원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코쿠전력이 과소 평가했다며 이 원전의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코쿠전력이 예상하는 분석(噴石·용암

조각과 암석 파편)과 화산재의 양이 지나치게 적다”며 “화쇄류(火砕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림)가 원전에 도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이카타 원전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가동 중지 기한을 내년 9월까지로 정했다. 앞서 이카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롭게 마련된 규제기준에 따른 안전심사를 통과해 2015년 8월 재가동했다.

이카타 원전은 활화산인 아소산과도 가깝고 활성단층에서 불과 5km 떨어져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가처분 소송이 잇따랐다. 이날 결정은 이들 가처분 신청 중 주민들이 승리한 첫 사례다. 지난 3월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가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마크롱 “미국 말고 지구를 위대하게”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기후 정상회의 ‘원 플래닛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를 주도하며 도널드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무력화에 맞섰다.

마크롱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원 플래닛 서밋’ 공식 행사에서 각국 정상과 기업 경영자, 투자자에게 파리협정 지지와 지구온난화와의 싸움을 위한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원 플래닛 서밋’은 프랑스 정부와 유엔, 세계은행이 파리협정 발효 2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로 각국 정상 등이 참여해 ‘기후 정상회의’로 불린다.

마크롱은 회의 개최 연설에서 “우리는 전투에서 지고 있다”며 파리협정을 철회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을 ‘아주 나쁜 뉴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미 정부의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며 트럼프의 결정이 국제사회 정서에 반감을 지켰다. 마크롱은 앞서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돌아오면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전날 저녁 사전행사에서 기후협정 연구기금을 지원할 프로젝트 18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기금 이름은 트럼프의 대선 슬로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를 패러디한 ‘다시 지구를 위대하게’다. 마크롱은 지난 6월 트럼프가 기후협정 탈퇴 계획을 밝힌 지 몇 시간 뒤 이 연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 프로젝트 중 13개가 미국 과학자들이 추진하는 연구라는 점도 아이러니다.

NYT는 그럼에도 미국의 불참으로 국제사회가 글로벌 배출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장관, 왕이 中외교부장에 ‘기자폭행’ 유감표명

- 정의용 안보실장, 文대통령 지시로 피해 기자 문병
-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 정부에 철저한 수사 협조 요청



▲ 중국 측 경호 관계자 폭행으로 쓰러진 한국 사진기자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국민방문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의 한 사진기자가 베이징 국가회의 중심 B홀에서 중국 측 경호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해 쓰러져 있다.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서 스타트업관 이동 중에 폭행당했다.

중국 정부가 국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 수행기자단 폭행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측은 14일 “중국 경호원의 한국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공안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요청했다”며 “아울러 본 사건은 21시부로 중국 공안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한중무역파트너십 개막식장에서 중국측 경호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취재하고 있던 한국 측 사진기자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에 열린 한중정상회담장에서 왕이 외교부 부장에게 대통령 수행기자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통령 수행기자단 폭행사건의 수사를 공식 의뢰할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공식적인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며 “피해입은 두 기자가 그의사를 밝혀서 내일(15일) 이와 관련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사장 안에서 경호했던 사람들은 코트라(KOTRA)가 계약한 보안업체 경비원들이었다”라며 “두 기자를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채증한 영상을 중국 정부 측에 증거물로 보냈고, 경찰서에서도 보내서 피해자 진술을 통해 밝히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 지시로 임원해 있는 <매일경제> 사진기자를 위문하고 병원에 있던 중국 공안 담당자에게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중국측 경호

원에게 폭행을 당한 <매일경제>와 <한국일보> 사진기자는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15일 저녁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현재 <매일경제> 반장 임원 기간 동안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이 상시 지원할 계획이고 귀국길에는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가 한국까지 호송할 예정이다”라며 “이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주중 한국대사관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14일 중국 언론들은 중국을 국민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동행취재하던 한국기자들이 전일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보도를 자제했다.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시간대까지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한식, 중식 전문

사계절

**볶음 짜장
볶음 짬뽕**

냉면 개시

인기 요리

아구찜	홍어탕수
광어탕수	냉채족발

인기 전골

광어	아구
흑염소	감자
곱창	외 다수

개업1주년

런치스페셜 \$8.95

짜장, 짬뽕, 냉면
우거지갈비탕
갈비탕

100석
단체환영

‘술’가져와 드세요

주방보조, 웨이츄레스 구함

영업시간
월 ~ 토 : 오전11시 ~ 밤10시
일 : 오후5시 ~ 밤10시

5240 Queen Mary (snowdon 지하철 앞) 전화:438-383-2233

중유럽 최대 가스관 폭발... 유럽, 이 겨울에 '에너지 대란'



12일 오전 오스트리아 동부 바움가르텐에 있는 천연가스 공급 허브 설비가 폭발한 뒤 고가 사다리차가 동원돼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유럽 가스 수요의 10% 이상을 책임지는 이 가스 시설의 폭발로 이탈리아가 에너지 공급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유럽 지역에 가스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천연가스 공급관의 폭발 사고로 유럽 지역에 가스대란이 우려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12일 천연가스의 30%를 오스트리아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이탈리아는 에너지 공급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탈리아에선 가스 가격이 2배 가

까이 폭등했고, 네덜란드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쯤 오스트리아 동부 바움가르텐에서 천연가스 공급 허브 설비가 폭발해 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1959년 건설된 바움가르텐 허브 설비는 연간 400억㎥의 저장 능력을 갖춘 중유럽 최대 천연가스 시설이다.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

에서 수입한 천연가스를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으로 배분한다. 유럽 지역 가스 수요의 10% 이상을 책임진다.

운영사인 가스커넥트 오스트리아는 사고 원인을 '기술적 문제'로 보고 즉시 시설을 폐쇄했으며 가스 공급 재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선 북해 송유관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유럽 지역의 에너지 대란을 부채질했다. 영국 내 최대 규모 송유관인 포티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스위스 이네오스는 애버딘서 지역의 손상된 가스관을 수리하기 위해 향후 몇 주간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의 40%를 영국에 공급한다. 이날 영국 가스 가격은 한때 46% 급등, '섬'(therm·열량 단위)당 99펜스까지 치솟기도 했다. 2018년 1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역시 5배 오른 75펜스를 기록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美 “무조건 대화” 김정은 받을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 포기 의사를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게 그동안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었던 걸 감안하면 파격적인 선언이다.

틸러슨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미국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나서 날씨 얘기를 해도 좋고, 사각 테이블이 좋을지, 원탁이 좋을지 논의해도 좋다”면서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한 건 처음이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북-미 대화가 열리면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한반도 위기가 해소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12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 NHK방송 기자를 만나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다만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먼저 대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일정 기간 도발을 중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화에 앞서 북한이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무조건적인 핵무기 포기과 폐기를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단지 북한 측과 만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됐느냐고 물어보기만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그들은 이미 거기에 너무 많은 걸 투자했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비확산 등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해제, 경제적 지원이 따를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틸러슨 장관은 “중요한 것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대화 테이블에는 원하는 모든 걸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확보하고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은 접경지역을 넘어오는 북한 난민들에 대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측에 알렸고, 미국은 유사시 미군이 휴전선을 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고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등이는 의될 가능성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ETF, 세계 금융위기 시한폭탄 될수도”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됨에 따라 이에 연동한 ETF(지수연동형펀드)가 탄생할 것이며, 비트코인 ETF가 세계적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FT는 개인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처럼 펀드 매니저들도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한다고 전제한 뒤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됨에 따라 이에 연

동된 ETF가 나올 것이고, 이를 계기로 차입금을 동반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전도사인 윈크레보스 쌍둥이 형제가 ETF 출시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더 이상 이를 거부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지난 10일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고,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오는 17일부터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물에 연계된 ETF가 출범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이미 미국의 두 자산운용사가 SEC에 비트코인 기반 ETF 출시 허가를 신청했다. 렉스셰어스 LLC와 반에크 어소시에이츠는 지난 11일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 허가를 요청했다.

ETF는 비트코인을 변신케 할 것이다. 투자자들이 아주 쉽게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차입금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ETF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같은 현상이 일반화된다면 세계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FT는 전망했다.



김호성 변호사 법률상담

Ho Sung KIM, Avocat - Attorney

- 이민대행 및 이민법 전문
- 민법, 상법



- 2001 - McGill University Computer Science
- 2006 -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LL.B.
- 2007 - Hugues Langlais Law Office
- 2008 - Member of Barreau du Québec (퀘벡주 변호사 자격증)
- 2009 - Solo Practitioner - Law Office of Ho Sung Kim
- 2011 - 퀘벡 한인실업인협회 고문변호사
- 2013 - 몬트리올 한인회 고문변호사
- 2013 - Y&K 이민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14 - 퀘벡주 이민변호사협회(AQAADI) 이사

법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법 문제를
모국어로 쉽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 : 514-717-6720 / FAX : 514-439-3868 / E-mail : hosung.kim@gmail.com
300 Saint Sacrement Street, Suite 328 Montreal (Quebec) H2Y 1X4 (올드몬트리올)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4대원칙에 합의했다



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등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 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통화·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통상·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함께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

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31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용납 불가'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양국간 갈등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거듭 거론했다.

다만, 시 주석이 두 번째 정상회담 당시 '역사적 책임'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며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0여분 가량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

이낙연 총리 “세월호 조사방해, 가상화폐 대책 사전유출 충격“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방해한 것과 가상통화 관련 정부 대책 초안이 유출된 사고에 대해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회의 시작하자마자 “안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어제는 가상통화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

간 40분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두 가지 사고의 공통점이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것이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탄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혁신방안, 사행산업건전화 대책, 사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등이 논의됐다.

한인경영
상담문의 환영

“특별 할인 UP TO 40%” 무료설치 무료견적

www.simplelineblinds.com

가격비교 불허!

집 내놓으시기 전에
부동산 가치의 최대 효과

식당메뉴, 음식사진 등 광고용
회사 로고, 가족사진을 롤블라인드에
〈오타와 견적 출장 환영〉

심플라인 블라인드
SIMPLELINE BLINDS
simplelineblinds@gmail.com
(514) 623-8131/557-2063

MC 몬트리얼 카딜
정직과 신뢰의 새 차, 중고차 딜러!

대표전화: 514-303-0433
팩 스: 514-683-6888
웹사이트: www.montrealcardeal.com
E-mail: montrealcardeal@videotron.ca

새 차!
오퍼 받으신 가격이 정말 BEST인가요?
당사가 드리는 가격은 거의 모든 딜러에서
계약후 추가하는 별도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MONTREAL 최저가 개런티!
최소 500\$ ~ \$2,500 이상 저렴!
구매종류 : 현금구매, 파이낸싱 구매 그리고 리스
*당사에서 차량구매시 보험, 차량등록, 운전면허증 교환 등
각종 정보 및 서류 취득을 손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고차!
중고차는 년식, 차량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당사는 정밀한 차량 점검 및
품질관리를 최고의 차량을 공급합니다.
당사에 고객이 찾으시는 차량이 없을 경우
최대 2주내에 가장 좋은 차를 알선해서 공급하는
고객맞춤 서비스도 당사의 자랑입니다.

1년 단기 리스 가능
(\$300/MONTH WITH 0 DOWN)
몬트리얼에 1-2년 머무르시는 경우 최고!
FULL WARRANTY가 포함

오시는 길 : 5050 rue PARE, #287,
Montreal, QC H4P 1P3

우병우 '3번째 영장심사' 끝에 결국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학계·출판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교육계를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팀

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0월19일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불법사찰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혐의로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익정보국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우 전 수석이 '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추가수사에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내정되자, 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과총 내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한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 6일에는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사례를 들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은 정부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을 사찰하고 출판·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25일자 국정원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진보교육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적 취약점도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TF)로부터 문학·출판계 인사를 뒷조사하고 블랙리스트에 관련한 정황이 담긴 문건 역시 확보했다.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받아 '박근혜 재판' 예고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4년 되던 지난해 12월19일부터 1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1심 재판이 14일 막을 내렸다. 최씨에 대한 1심 판단은 다음달 26일에 나온다. 지난해 10월31일 검찰 소환 때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읊소하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국가 위기사태의 장본인"으로 규정하고, 징역 25년과 1185억원의 벌금, 77억9735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안중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박 전 대

통령과 최씨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정경유착의 적폐를 기회 삼아 헌법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의 장성욱 특검보는 이날 재판에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심분 활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며 "최씨가 재판 내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과 검찰을 비난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라고 비판했다. 에스케이-롯데 뇌물 및 직권남용 등의 사건을 맡았던 검찰 역시 "최씨는 기업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 이익을 향유하는 등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최씨 쪽 이경재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을 "일부 정파와 정치검사 등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최씨에게 실제 과오가 있다고 해도 탄핵이나 구속기소될 사안은 아니다.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아아아악!" 하고 과성을 지르는 등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세차례 휴정을 거치기도 최씨가 안정되지 않자 최후진술을 앞당겨 진행하고 조기퇴정시켰다. 그는 "구형을 보며 가슴이 멈출 것 같았다.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23분간 오열했다. 또 "박 대통령 곁에서 투명한간같이 살았다"며 억울함을 토하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최씨의 18개 혐의 중 11개가 겹치는 탓이다. 이미 공범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와 결과가 예측 가능한 사건도 있다. 삼성-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강요, 케이티(KT) 광고 수주 강요 등 혐의는 공범인 조카 장시호씨와 차은택씨 등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433억원 뇌물 공여자로 엮여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등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VIP 여행사

하나.2018여름방학 에어 차이나 김포공항행 스페셜
 베이징 한번 경유하고 미리사서 저렴하게 여름에 한국 가자!(마감입박)
 스페셜!! 에어 차이나 \$850부터 ~(5월 25일~6월 21일/7월 2일~8월 30일)
 스페셜!! 에어 차이나 \$1030부터 ~(6월 22일~7월 1일)

둘.2018여름방학 에어 프랑스 스페셜
 스페셜!! 에어 프랑스 \$1021부터 ~(출발5월 1일~8월 30일)

셋.2018여름방학 아시아나 항공 스페셜
 스페셜!! 아시아나 항공 \$1359부터 ~(출발7월 2일~8월 16일)

비수기 인천행 스페셜
 에어 차이나\$964부터~(베이징 경유 김포공항1월1일~5월 24일 출발)
 에어 프랑스\$1021부터~(1월 1일~8월 30일 출발)
 에어 캐나다\$1175부터~(1월 1일~4월 30일 출발)
 아시아나 항공 \$1209부터~(1월 1일~5월 6일 출발)
 대한항공 \$1255부터~(1월 1일~4월 30일 출발)

항공사와 리턴 날짜에 따라서 surcharges 가 추가될 수 있으며 좌석수 제한이 있으며 주중 가격입니다. 가격은 광고후에도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업그레이드 되는 항공권 가격 여행사에 문의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떠나는 패키지 여행
 (겨울휴가 미리 예약 하세요)
 쿠바 ,멕시코,도미니카 공화국, 코스 타리카등
 (sunwing / Transat /Aircanada /Westjet vacation ,TMR, caribe sol tours등)
 웹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한인여행사와 함께하는 캐나다 서부 여행
 (2인 1실 기준/ 항공료 별도)
 밴쿠버 ,룩키, 빅토리아 5박 6일 \$579
 오토라 ,에드민턴몰, 룩키 6박 7일 \$829

미국 버스투어 Let' s go to USA(4인 1실 기준)-
 토론토 & 나야아가라 폭포 1박 2일 \$49.99부터
 토론토 & 나야아가라 폭포 2박 3일 \$109.99 부터
 2018 새해 카운트다운 뉴욕 2박 3일 가이드투어 \$89.99(출발 12월 30일/31일)
 2018 새해 카운트다운 뉴욕 3박 4일 가이드투어 \$139.99(출발 12월 29일/30일)
 올란드 디즈니월드 7박 8일 \$429 부터(출발 12월 23일)



사무엘 레이
(영/불/중/독어)



AGENCE IMMOBILIERE / REAL ESTATE AGENCY / MORTGAGE BROKER

27년 경력 공인중계사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서비스

2934, Jolicoeur, Montreal, Quebec, H4E 1Z3
email : samuellai@groupe-sams.com
전화 : 514-768-8886 팩스 : 514-768-0078

514-591-5188 부동산



Leslie Woo

중계료 2%*, 노타리비**

특별 프로모션! (한시적) *부동산 매각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2%부터 시작) **구매자에게 드리는 혜택

주택, 주상복합, 커머셜 부동산 파실분 / 사실분
대출관련 도움 필요하신 분도 연락 주세요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www.groupe-sams.com에서 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379,000+재고 타이 익스프레스(프랜차이즈 fee 9%) 연매상 50만불, 쉬운운영, 장기임대, 성업중인 쇼핑몰에 위치, 좋은가격 높은마진 (blvd. Cure Labelle, Rosemere)
- 2.\$179,900 새미커머셜 빌딩, 60아파트 2x6½, 2x4½, 2x2½ 연수익 \$39,000, 수리필요, 사또기 강가, 투자대비 고수익, 연락주세요 (rue Chateauguay, Ville Huntingdon)
- 3.\$89,000+재고 드라이클리닝, 50년된 가게 18년간 같은 주인, 장비완비, 월세\$1600, 임대기간은 구매자 원하는 만큼, 쉬운경영 (rue Chabanel west, Montreal)
- 4.\$449,000 새미 커머셜 빌딩, 넓은 아파트 5½(비어있음), 빈 가게자리(술집), 주인이 위에 살며 사업가능, 타운입구에 위치(rue L'Ange Acadian, Ville Assomption)
- 5.\$35,000+재고 데파노, 연매상 30만불, 배달없음, 월세 \$2000(세금포함), 장기임대, 빌마리 지하철역 바로옆, 낮은 운영비, 배달하면 매상 올라감 (Blvd. Decarie, NDG)
- 6.\$509,000 새미커머셜 빌딩, 아파트x2 임대중, 아래층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수리 모두 했음, 주차장 뒤에 있음, 변화가, 장기투자에 적합(rue L'Ange Acadian, Ville Assomption)
- 7.\$399,000 빌딩 건물, 매우 좋은가격, 문닫은 술집, 모든장비가 그대로 있음, 빨리 팔릴것으로 예상, 서두르세요 (rue Lacombe, Ville Legardeur)
- 8.\$1,019,000 커머셜빌딩, 윗층은 데이케어가 입주(월세 \$3500+40%세금, 8년남음) 아래층은 120석 식당(배달) (rue Provost, Lachine)
- 9.\$39,900+재고 동양식당, 80석, Cote Vertu와 du College 지하철 인접 (Blvd Decarie, ville St-Laurent)
- 10.\$299,000+재고 아이스크림 가게, 프랜차이즈, 연매상 30만불, 월세 \$7000, 7년임대+5년 옵션, 수퍼 딜! (Blvd. Galerie d' Anjou, Ville d' Anjou)
- 11.\$49,000+재고 셀프 세탁소, 동전넣고 작동하는 세탁기와 건조기, 월세\$1250+tax, 연매상 \$65,000 순수익 \$45,000 자세한 내용은 전화요망 (rue Jarry Est, Ville d'Anjou)
- 12.\$509,000 새미커머셜 빌딩, 1층에 동양식당(200석)+아파트(방4+지하실 완료) 시내중심 변화가, 주차20대 가능 (rue St.Vincent, Ville St Agathe des Monts)
- 13.\$399,000 커머셜 스페이스, 4000sft, 각종 사업으로 사용가능, 밝은전망, 부자 고객들 중심에 있음, 2개의 가게로 나눌 수 있음, 방문요망!!! (Ste-Catherine W. Westmount)
- 14.\$229,900+재고 레스토랑, 연매상 60만불, 모든 장비 및 가구 포함, 장기임대, 월세 \$3600, 빨리 팔릴테니 서두르세요 (Blvd. Mont-Royal, Montreal)
- 15.\$59,900+재고 드라이 크리닝, 밝은전망, 변화한 플라자에 위치, 모든 장비 있음, 성업중, 높은 수익 (rue Cote Vertu West, Ville St-Laurent)
- 16.\$279,900 콘도 4½, 차고, 실내를 통해 들어감, 동향-햇빛 많음, 매우 좋은가격 (rue Lapierre, Ville Lasalle)
- 17.\$109,000+재고 커피숍, 50년간 경영, 높은매상, 월~토 영업, 부부가 경영하기에 좋음 (rue Queen Mary, Montreal)
- 18.\$399,000+재고 이태리식당, 연매상 1,500,000\$, 쇼핑센터 내, 높은 가능성, 합리적인 월세, 13년 임대 (ave St.Charles, Ville Vaudreuil)
- 19.\$79,900+재고 피자식당, 고등학교 바로옆, 주변에 큰 사업체, 높은매상, 로올라 컬리지로 배달 많음, 임대료 적합, 빨리 연락주세요 (rue Westminster North, Montreal West)
- 20.\$329,000 차압된 커머셜빌딩, 변화가에 위치, 주차10, 매우좋은 딜!, 다른 종류의 식당 오픈 가능, 전화 주세요 (Rue Marquette, Longueuil)
- 21.\$999,000 농장, 몬트리올 1시간 거리, 3,270,000sfts, 집(방4, 차고2, 마굿간, 인공호수, 매우좋은가격(Rang 3eme Street, Ville Ormstrom)
- 22.\$8,000,000 농지, 20 loted. 고속도로 10/30 바로 건너편, 새쇼핑몰 근처, 새개발지역, 새기차역 근처 (Blvd. Grande Allee, Brossard)
- 23.\$429,000+재고 새미 커머셜 빌딩+아래층 데파노와 주유소(펌프 작동하지 않음) 큰 6½ 아파트(월세\$1250) 전기,난방 별도, 연매상 80만불(rue Ste.Fereol, Ville les Cedres)
- 24.\$184,900 콘도, 반지하 4½, 방2, 앙그리농 지하철 2분거리, 좋은가격, 빨리 움직이세요 (rue Chouinard, Lasalle)
- 25.\$109,000+재고 데파노, 배달없음, 가능 매상 1백만불 현재는 80만불, 장기임대 (rue Charleroi, Montreal North)
- 26.\$579,000 아파트 빌딩, 3½+5½+데파노(아래층) 다른 업종으로 변경가능, 매우 좋은가격 (rue Allard, Montreal)
- 27.\$199,000+재고 1불스토어, 높은전망, 연매상1백만불, 합리적인 월세, 높은마진, 매우 쉬운 경영, 큰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데 좋음 (rue QueenMary, Montreal)
- 28.\$69,000+재고 피자식당, 40석, 장비완비, 지하실, 월세 \$3500, 10년 임대, 매우 좋은 딜, 한식당으로 변경가능 (rue Westminster North, Montreal West)
- 29.\$89,000 이태리 식당, 30년 전통, 높은매상, 월세 \$3500+GST+QST+Biz tax(4500\$/year), 2층+테라스, 매우 높은 마진, 전화요망(rue St.Denis, MTL)
- 30.\$1,090,000 이태리인이 지은 집, 방5, 지하실완료, 아래층은 아파트로 변경가능, 매우 맑은 호수+넓은대지(42에이커)(Rang 2e Street, Ville St.Blaise pres de Napierville)
- 31.\$69,000+재고 40년간 운영한 데파노,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매상, 연매상 50만불 (rue Allard, Montreal)
- 32.\$349,000 새미 커머셜빌딩, 아래층은 데파노(월세\$1600+비즈니스 세금), 윗층은 큰 5½(월세800\$, 전기, 난방별도), 임대7년, 전화요망 (rue Jarry E. Montreal)
- 33.\$769,000 아파트 건물, 연수익 약10만불, 윗층에 아파트3, 아래층 가게3, 변화가, 대지 15,000sft, 약간의 다운페이로 가능(rue Notre Dame Est, MTL)
- 34.\$165,900+재고 드라이 클리닝, 변화가에 위치, 좋은 매상, 건물 매매도 가능 (Blvd Monseigneur Langlois, Ville de Valleyfield)
- 35.\$419,000 새미 커머셜, 아파트2, 아래층은 피자식당, 발리필드 시의 다운타운에 위치, 옆에 대지도 판매(\$99,900) (rue du Marche, Ville Valleyfield)
- 36.\$459,000 커머셜빌딩, 아래층은 데파노, 넓은대지 추가로 가게 건축가능, 높은수익가능 (Ch. De la grande cote, Ville St-Eustache)
- 37.\$400,000 프랜치 식당, 90석+40석 테라스, 스키 시즌 겨울장사가 좋음, 5½아파트포함, 넓은주차장, 식당포함 매매(rue Adele, Ville St-Adele)
- 38.\$99,000 드라이클리닝, 좋은 빌딩의 코너에 위치, 경험자에게 좋음, 높은 매상, 좋은가격, 적은 지출, 높은마진 (rue Laurendeau, Montreal)
- 39.\$89,900 대지, 5,500sft, 상업&주거 지역, 6-8 아파트 건축가능, 넓은 공간, 좋은가격 (rue Du marche, Ville Valleyfield)
- 40.\$79,000+재고 동양식당, 주방2, 60석, 1050sft, 콩코디아대학 바로옆 (rue Ste-Catherine W. MTL)
- 41.\$459,000 트리플렉스, 2x5½, 1x4½, 지하철 Parc 근처, 전기난방(세입자부담) 월세 \$550, \$750, 주인이 거주하기에 좋음 (rue de l'eppe, MTL)
- 42.\$619,900 109,000,000 스퀘어미터의 농토, 곧 레지덴셜 땅으로 존닝이 바뀔 예정 (rue Montee St.Robert, Ville St.Lazare)
- 43.\$199,000+재고 수퍼마켓, 성업중, 패스트푸드 함께 함, 썬-까뜨린느 변화가에 위치, 콩코디아 대학 부근, 월세 좋은 가격 (rue ste.Catherine west)
- 44.\$750,000 대지, 주거용, 3필지, 건축허가 받음, 필지당 4플렉스 건축시 빨리 팔 수 있음, 빨리 연락주세요 (rue de Monts, Ville Emard)
- 45.\$279,900+재고 서양식당, 성업중, 200석+테라스, 약4800sft, 매우 좋은 손님층, 18년 임대(매년 원가인상 방식) (Blvd. Chambly, Ville Longueuil)
- 46.\$250,000+재고 데파노, 연매상 70만불, 복권 10만불, 순수익 약9만불, 2x3½(윗층), 월세 400\$, 전기,난방 별도 (rue Chateauguay,, Ville Hungtington)
- 47.\$359,000 커머셜 콘도, 1,800sft, 레스토랑 장비+가구 포함, 주차3, 매우 좋은가격 (Blvd. Cure Labelle, Ville Rosemere)
- 48.\$279,000 유명 일식당, 250석, 연매상 \$1.5M, 13년 장기임대 (rue St-Laurent, Longueuil)
- 49.\$8,500,000 호텔 방120개+스파, 넓은땅, 호숫가, 800석 컨벤션홀, 좋은 가격 (Blvd. Montee Yvon Plante, City of Alexis des Monts)
- 50.\$199,900 대지, 상업용/거주용, 약1만sft, 변화가 코너자리, Lachine, 연락요망 (Lachine)
- 51.\$125,000 컨티넨탈 레스토랑, 조용한 불어지역, 매우 좋은위치, 다른 종류 식당으로 변경가능, 건물매매가능(+25,000\$) (rue Ste-Adele, Ville Ste-Adele)
- 52.\$169,000+재고 타바지, 오피스 건물내 위치(3000명 근무) 크레마지 지하철 바로옆, 매우 바쁜거리, 월세 \$1600(세금포함) 9년임대, 순수익 \$85,000 (rue Cremazie E. MTL)
- 53.\$129,000+재고 드라이 클리닝, 주매상 \$3500, 월세 저렴, 매우 쉬운경영, 높은마진, 밝은 전망(rue Roi Rene, Montreal)
- 54.\$59,900+재고 동양식당, 영여권 변화가에 위치, 밝은전망, 월세 \$2700 세금포함, 임대계약 장기로 갱신가능, 새장비(rue Sherbrooke W. MTL)
- 55.\$149,000 드라이클리닝, 장비가 매우 좋음, 좋은 매상, 높은마진, 연락주세요 (Blvd St.Charles, Kirkland)
- 56.\$129,900 커머셜 콘도 150sft, 가장 고급 지역, 웨스트마운트, 사무실로 적합, 좋은 가격 (rue Ste.Catherine West, Westmount)
- 57.\$90,000+재고 데파노, 성업중, 100년 전통, 연매상 80만불, 연수익 약8만불, 건물과 함께 20만불(rue Chateauguay, Huntington)
- 58.\$64,900 동양식당, 100석, 데카리 변화가에 위치, 식당 경력 있으신분에게 매우 좋음 (Blvd Decarie, Ville St-Laurent)
- 59.\$169,000+재고 데파노, 성업중, 매우 잘 운영되었음, 연매상 80만불, 월세 \$3000, 장기 임대 10년, 빨리 결정하세요 (rue Papineau, Montreal)
- 60.\$129,000 새미 커머셜, 윗층 1x5½, 아래층은 폐업한 식당, 모든 장비 있음, 넓은대지, 20만sft, 좋은가격(rue Principale, Ville St.Belermey)

Sunwing 부킹 하기 전에

바로바로에 부킹 하시면 (보시는 사이트 금액) 즉석에서 40\$ Cash back 해 드립니다
(2인 1실 일주일 올 인쿠르시브 패키지 기준)

www.barobaro.ca

바로바로 여행사

미리 준비하고 저렴하게 한국 다녀오세요! (서울행 세일이 모두 모였다!)

아시아나 여름 방학 대박 세일가

출발 날짜 (7월 2일 ~ 8월 16일사이)
어른 요금 1358 / 어린이는 1098 \$
미국 한번 경유이며 좌석 마감시 까지

에어 캐나다 토론토 경유로 편안하게

출발 날짜 (1월 1일 ~ 4월 30일 사이) 1195 \$
출발 날짜 (5월 1일 ~ 6월 14일 사이) 1390 \$
출발 날짜 (6월 15일 ~ 7월 15일 사이) 1765 \$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1월 ~ 4월) 2155 \$
12월 15일까지 구입시 세일가

저렴한 맛에 탄다 에어 차이나 북경 스탱 오버도 문의 하세요

출발 날짜 (1월 1일 ~ 5월 24일사이) - 960\$
출발 날짜 (5월 25일 ~ 6월 21일사이) - 852\$
출발 날짜 (7월 2일 ~ 8월 31일사이) - 852\$
여름 성수기 리턴 날짜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에어 프랑스로 여름에 파리로 보고 서울도 간다. 파리 ~ 스탱 오버 포함

출발 날짜 (3월 1일 ~ 8월 30일사이) 1270 \$ 부터
여름 성수기 7, 8월 리턴 날짜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 2018년 최고의 이코노미석, 월드 베스트 항공사 8위 선정 (이제 미리 사시고 경험에 보세요...기다리면 요금 올라 ~ 갑니다)

* 대한항공 프로모션 (11월 28일까지 티켓 구입시 - 새로 티켓 구입 하시는 분에 한해)

아래 요금에 30\$ 캐쉬백 + 짐 태그 증정

출발 날짜 (1월1일~4월30일사이 출발) 1235\$부터 12월18일까지 세일가
출발 날짜 (5월 1일 ~ 6월 14일사이 출발) 1420 \$ 부터

긴긴 겨울이 옵니다. 휴가도 옵니다. 비타민 D 받으러 떠나지요!
(태양이 있어 좋다.. 해 주는 밥 먹어서 좋다...가족과 함께 해서 좋다...)

패키지 경유 : 아래 가격은 12월 6일 공시 가격으로 2인 1실 (더블 룸) 기준 왕복 항공료, 호텔, 전 일정 식사 및 주류가 포함 된 가격입니다
아래 출발 날짜외에 2017년 ~ 2018년 겨울 다양한 출발 날짜 / 사우스 출발 장소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넘어 찾는 겨울 휴양지 # 1 - 쿠바

- 바라대로 (Playa De Oro 3.5*) 695 \$ (1월 16일)
- 캐요산타마리아 (Melia Las Dunas 4*) 915 \$ (1월 16일)
- 바라대로 (Grand Memories Varadero 4.5*) 955 \$ (1월 16일)
- 하바나 (Bravo Club Hotel Arenal 4*) 1149 \$ (1월 7일)
- 산타루치아 (Brisas Santa Lucia 3.5*) 739 \$ (1월 11일)
- 산타루치아 (Bravo Club Caracol 4*) 809 \$ (1월 18일)
- 캐요산타마리아 (Valentin Perla Banca 4.5 *) 895 \$ (1월 22일)

블거리 + 먹거리 + 놀거리 삼박자가 - 멕시코

- 아카폴코 (Mundo Imperial 5*) 1055 \$ (1월 31일)
- 칸쿤 (Emporio Hotel 4*) 1329 \$ (1월 10일)
- 리비에라 나야릿 (Riu Place Pacifico 5*) 1715 \$ (1월 14일)
- 리비에라 마야 (Blue Bay Grand Esmeralda 4.5*) 2169\$ (12월29일)

하얀 모래사장+눈을 사로잡는 열대어-도미니카 공화국 and 기타

- 폰타카나 (Be Live Collection 4*) 1099 \$ (1월 14일)
- 파나마 (Royal Decameron 4*) 1399 \$ (1월 11일)
- 바하마 (Sandals Royal Bahamian 5*) 2659\$ (1월27일) *18yrs old

크루즈 (쿠바+캐리비안/MSC opera) 1435\$

(2월 3일 / 일주일 / 더블 룸) 비행기 포함

크루즈 (캐리비안 / Norwegian) 1345\$

(1월 13일 / 일주일 / 더블 룸) 비행기 포함



서울발 몬트리얼행 티켓, 한국에서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유류 할증료 및 서비스 요금 OPC FICAV 펀드차지 (1\$/100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맥길 메트로에서 1분거리)

VOYAGES BARO BARO

18년 경험의 에이전트가 티켓 및 여행의 궁금함을 풀어 드립니다

514-939-1237

voyagesbarobaro@bellnet.ca
2075 boulevard Robert-Bourassa suite 1207
Montreal Quebec, H3A 2L1 (OPC-702659)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대사 신맹호)과 캐나다 한국문화원(원장 이영호)은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오타와교육청 산하 국제교육 담당 기관인 OCENET과 공동주최로 한국의 문화·역사·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캐나다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발표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는 '2017 코리아 포럼(이하 포럼)'을 캐나다 한국문화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OCENET의 과외특수과정프로그램인 국제학프로그램(International Certificate Program)을 이수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및 지도교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맹호 주캐나다 대사의 환영사, 제니퍼 아담스 오타와 교육청장의 축사, 도널드 베이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한국학 교수의 기조연설, 학생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맹호 주캐나다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2014년부터 4년 연속으로 함께 코리아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는 오타와교육청에게 감사의 전하고, 19세기 캐나다 선교사들의 방한 및 인적교류의 시작과 캐나다군의 한국전 참전으로 인해 다져진 양국간 우호관계가 오늘날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연결되었다고 밝혔다. 신맹호 대사는 우호적인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작년 캐나다 한국문화원의 설립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는 '코리아 포럼'을 참석하는 캐나다 청년들이 한국과 캐나다간의 관계를 이끌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니퍼 아담스 오타와교육청장은 축사를 통해 오타와교육청의 국제학프로그램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소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주는 주캐나다 대사관 및 문화원에 감사의 전하며, 본인 역시 지난 12월 1일~2일 제주도교육청 개최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세계의 교육자들과 공통되는 다양한 교육 관련 이슈와 과제들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으며, 국제적인 소

"캐나다 고등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발표하는 한국 문화" 주캐나다 대사관·한국문화원, 오타와교육청과 함께 '2017 코리아 포럼' 개최



통과 의견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고 밝혔다. 아담스 오타와교육청장은 오타와교육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캐나다의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안목과 시야, 그리고 실질적인 국제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 주캐나다 대사관과 캐나다 한국문화원과 지속된 협력을 통해 이 과제를 실천해 나아가길 바란다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의 한국학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1971년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뒤 40여년간 한국을 연구하고 가르친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베이커 교수는 ▲매번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며, ▲한국은 정적, 역동적 모습을 동시에 소유한 사회·문화, ▲한국은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화합으로 공존하는 나라 등 학생들이 향후 한국을 공부하게 될 경우 느끼게 될 한국의 특징들을 공유했다.

이어 학생 발표시간에는 지난 11월 제주도교육청의 초청으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

가한 4인조(말리하 사와르, 에이버리 맥퀴터, 메이슨 맥과이어, 리암 밀라)는 본인들의 첫방한 경험을 공유하며 참가 후기를 발표하였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UNSDG)를 기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방안 에 대한 토론 ▲다양한 문화 탐방 및 체험 등 소중한 경험을 하며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가짐이 더욱 넓어지고 시민의식이 제고되었다고 밝히며 이날 참석한 학생들에게 내년 포럼에 꼭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리사 마샬 학생은 한국의 미(美)의 기준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화장품 시장 및 유행하는 화장법, 서양과 한국의 화장법 비교, 한국의 성형 문화, 패션 등 한국이 세계의 부티 기준과 유행을 선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레슬리 로드리게즈와 에리카 프라저 2인조 발표팀은 한국의 전설과 신화에 대해 발표하며 특히 한국의 무교 문화, 차사 본풀이 등 기본적인 한국의 토속 신앙과 신화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염라대왕, 삼신 등 주요 신화적인

물도 소개하였음. 동 발표팀은 발표 후 발표한 내용에 대해 카훿(Kahoot, 온라인 퀴즈 플랫폼) 퀴즈를 만들어 다시 학생들에게 복습시키며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로렐 류 학생은 한국의 K-Pop 산업과 인기 등에 발표하였으며, K-Pop 아이돌이 육성되는 과정, K-Pop의 유래, 어떻게 K-Pop이 해외에 소비되고 해외 진출을 위해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등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K-Pop의 모습 외에 내면적인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유양가 다르칸바타르 학생은 한국전쟁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전쟁의 시초와 이유, 한국전쟁 중 중요한 사건들, 현재 남북한 분단과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소개하며, 특히 경제적 불균형,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등 남북간의 통일이 되려면 극복해야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포럼을 참석한 캐시 스키퍼스 국제교육담당관 외 지도 교사들은 포럼이 학생들에게 세상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하며, 스키퍼스 담당관은 캐나다 한국문화원의 제한적인 규모로 인해 학생 및 학교들의 참가요청을 일부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며 포럼의 인기를 전했으며, 이것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포럼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이영호 캐나다 문화원장은 주캐나다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향후 오타와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긴밀히 발전시켜나가 '코리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캐나다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할 계획이며, 오타와교육청의 한국교류사업 또한 적극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관련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 신지연/오타와 지국장-

<p>모기지 상담 환영! 시중 5대은행 및 다양한 모기지 옵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한번에 해결하세요!</p>			<p>서정협 (Justin Suh) 514-244-0751 e-mail : jsuh@sutton.com</p>			<p>주택/비즈니스/렌트 (종합 부동산) 부동산 Sutton GROUPE SUTTON - SUR L'ILE INC. AGENCE IMMOBILIERE 38, place du commerce #280 (Nuns island 내에 있는 Pharmaprix 2층에 위치)</p>		
<p>NEW VENDU</p> <p>Lasalle 앙그리농역 인근 콘도 방3, 욕실1+1, 실내주차, 약42평형 규모,교통편이. 인근 쇼핑센터 및 지하철 걸어서 5분내 Asking \$398,000</p>	<p>NEW</p> <p>Downtown 방2, 욕실1, Locker, Berri역 걸어서 10분이내. 5대 가전 포함. 2018년 5월말까지 RENT. 투자까지 양호. Asking \$178,900</p>	<p>ACHETÉ</p> <p>Brossard "L Section" 방3, 욕실 2, garage & locker 포함, 2012년 신축 콘도 다양한 편이 및 부대시설, Asking \$359,000</p>	<p>NEW</p> <p>Brossard 방4, 욕실3, 실내주차 1, 1998년 건축된 big size house, 12/1일 입주가능, fully furnished 논의가능 Asking \$2,400/월</p>	<p>NUNS' Pyramid Condo. 방3, 욕실2, 실내주차, New floor, new painting, 즉시 입주 가능. \$369,000</p>	<p>Val-Morin 2006년 건축한 단독주택+3채의 부속건물, 총 4개 건물,대지면적48,600 SF내외, 펜션, nursing house 또는 B&B 사업 가능 \$549,000</p>			
<p>VENDU</p> <p>Lasalle 앙그리농 신축콘도- EQ8 방2, 욕실1, Garage & Locker ±900 SF, 다양한 프로모션가능 관심있으신 분 연락바람.</p>	<p>NUNS' 년즈내 Evolu 신축콘도, 방2, 욕실2, 실내주차, 창고, 파노라믹한 riverside view, 고급 부대시설, Asking \$678,000</p>	<p>Brossard 방4+1, 욕실2+1, GARAGE, 7600 SF규모 사이즈, 고속도로 및 미래 경전철 라인 인근, 인근에 다양한 편이시설 Asking \$398,000</p>	<p>ACHETÉ</p> <p>LAVAL 방4+2, 욕실 3+1, double garage</p>	<p>LOUÉ</p> <p>BROSSARD 실내공간 1,700 SF내외, 방3+1, 욕실 1+2, 고속도로 인근 M 섹션,1월초 입주가능, 총 대지면적 4,350 SF내외, semi-furnished \$1,750/월</p>	<p>LOUÉ</p> <p>WESTMOUNT Vendome근처 아파트 서브렛,방2, 욕실 1, 7월 1일 입주가능, 750 sf내외, 난방, 전기, 운수 포함 가격 \$990/월</p>			
<p>ACHETÉ</p> <p>Chateauguay지역 단독주택, 방2+1, 욕실1, 대지 5,000 sf</p>	<p>ACHETÉ</p> <p>Candiac 단독주택 방 3+1, 욕실2, 다수의 레노베이션 asking \$399,000</p>	<p>ACHETÉ</p> <p>Downtown 신축콘도, 방2, 욕실 2, 파노라믹 View</p>	<p>ACHETÉ</p> <p>Brossard, P섹션 단독주택 방3, 욕실 2, 실내주차, 대지면적 5,200 sf, 파나마 환승역 인근, 교통최적, asking \$349,000</p>	<p>ACHETÉ</p> <p>Brossard 단독주택 방3+1, 욕실2, 교통최적 asking \$289,900</p>	<p>VENDU</p> <p>Pierrefonds 방3+1, 욕실2+1, 다수의 renovation \$449,000</p>			



부동산전문

514-913-4288

부동산 구입과 모기지를 한 곳에서...

Msjung@immo-superior.com



정민수

(B.Th., RCIC)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 Mortgage Specialist

만나면 만날 수록

“이익”이 되는 사람,
만나면 “반가운” 사람

더욱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매물



NEW
\$414,000
DDO: Detached Bungalow 3+1 bed, 2 full bath, 1차고. 나무바닥 (1층), 지하완료, 지붕(2014), 수리된 부엌. Central heating, Central A/C



NEW
\$649,000
다운타운 : McGill대 앞, 넓은 2 beds + 2 Bath (1,345 sf), 1 garage. 새로 수리된 콘도, 대학 캠퍼스와 Mont-royal 산 View, Central A/C



NEW
\$499,000
Nun's Island (Sommets IV) : 3 Beds + 2 full bath + 1 garage. 10 feet의 높은 천정, 시 감정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좋은 기회



NEW
\$819,000
Brossard, 2010년, 남향 밝고 아주 넓은 단독주택. 4+2 침실, 3+1 Bathroom, 1 garage. 새로 개발된 C section 위치. Chevrier terminal (다운타운으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 인접



NEW PRICE
\$849,000+GST/QST
Le Plateau - Mont-Royal길에 가까운 상가 집중지역의 변화한 거리에 위치한 준상가 건물 (상가 1, 아파트 2)



NEW PRICE
SOLD
\$489,500
Laval (Ste-Dorethee), 2004년 아주 밝은 단독, 침실3, 욕실2+화장실, 차고1. 상가 가깝고 주변 학교도 좋은 위치. 새 수영장 (2015) Heated, Salt system.



NEW PRICE
\$329,000
ST-Lambert : 침실 2, 욕실 2, 화장실 1. 햇볕이 잘드는 타운 하우스. 지하 finish 되어 있음. 콘도피 없는 타운하우스



NEW
\$549,000
실내면적 3,569sqft의 넓은 공간, 대지 7,900 sf
Ottawa에서 3분거리
Gatineau 민박, 하숙에 최적화된 투자건물 (duplex) 침실 9 욕실 4, 독립 출입문 3. 2층은 따로 리스 가능한 duplex. 가파노 강을 바로본 view. 수리되어 있는 건물



NEW
\$3,500+GST/QST/Net/M
Le Plateau 지역, Boul. St-Laurent 길에 위치한 1,760 sf의 공간. Mont-Royal 길과 가까운 위치.



SOLD
\$289,000
Ville-Marie 콘도 침실 2, 욕실 1, 2007년신축, Papineau 지하철에서 도보 6분 거리



NEW PRICE
\$308,800
South-West 침실 2, 욕실 1, 화장실 1, 외부 주차공간, 차고 1, 북층으로 되어 있는 콘도



NEW
\$409,000
Old Montreal : 침실 2, 욕실 1, 차고 1, 2015년 신축 콘도. 14층 높이에 거실 open view. 교통편리. Square Victoria 지하철 500m



NEW PRICE
\$309,000
Candiac 타운하우스 침실 2, 욕실 1, 화장실 1, 차고 2, 2010년 신축, Central Heating/Central A/C 등 많이 업그레이드 된 타운하우스



SOLD by me
\$488,000
LaChine : ASKED Townhouse, 3 bedrooms, 1+1 bath, 2 indoor garage



SOLD
\$449,000
Ville-ST-Laurent 타운 하우스 : 2 BDR + Large Mezzanine, 1+1 Bathroom, 2 Indoor garages



NEW
SOLD
\$618,000
Neuveau ST-Laurent : 침실 3, 욕실 2, 화장실 1, 차고 2, 넓은 Mezzanie. 지하 오피스/패밀리 룸 가능한 공간. 앞 건물과의 거리와 나무가 있어 답답하지 않음.



NEW
SOLD
\$459,000
Neuveau St-Laruent : 침실 3, 욕실 1, 화장실 1, 차고 2. Mezzanie에 패밀리룸까지 갖춘 타운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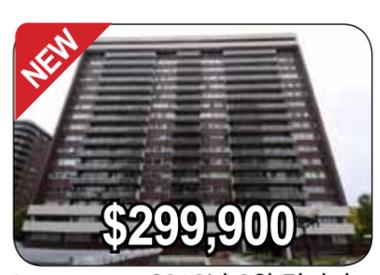
NEW
Listed and Sold by me
\$399,000
넌스 (Nun's Island) - 콘도 : 침실 3, 욕실 2, 차고 1, 실외 파킹 1, 차고 2, 새 초등학교 부근, 쇼핑몰 대중교통 가까우며, 아주 밝은 유닛



SOLD by me
\$375,000
DDO : ASKED price : Detached Split level 3+1 bedrooms, 2 bathroom, 1 indoor garage



SOLD by me
Asked Price : \$659,000
Brossard (R section) : 침실 4+1, 욕실 2+1, 더블 가라지. 조용한 주택가의 햇살이 많이 드는 집.



NEW
\$299,900
Investment 2018년 8월 말까지 \$1,700/m 렌트되어 있음

15곳 이상의 금융기관과 “직접” 모기지 상담에서 승인까지 한 곳에서...





<그때를 아시나요>

전나유

군밤 이야기

추운 겨울이면 늘 생각 나는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먹거리인 군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입맛 뿐만 아니라 정서까지 추억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찬바람 횡횡 도는 가로수 아래 거리에서 리어카를 받쳐 놓고 연신 군밤을 구워대는 아저씨의 콧등이 새빨갳게 얼어 있습니다.

신문지나 광고지를 오려서 풀로 붙여 만든 종이 봉투 안에 수북이 쌓이는 군밤의 고소한 내음이 정겹습니다.

살짝 그을린 밤껍질 사이로 노랗게 내민 속살의 유혹은 뿌리칠 수 없는 군밤 특유의 자존심입니다.

반들반들 윤기 나는 밤의 육질은 보기만 해도 침이 저절로 넘어갈 정도입니다.

두툼한 외투 주머니를 뒤적뒤적하던 신사 양반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군밤 장수 아저씨에게 건넵니다. 군밤 한 봉지가 신사 양반 손에 이내 들려 집니다.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손에 들린 작은 군밤 한봉지로 인해 만족감이 퍼져갑니다.

수험 공부에 지친 남학생이 책가방을 옆으로 끼우고 서서 팔려 나가는 군밤을 부러운 눈치로 보고 있습니다. 가슴에 있는 작은 호주머니에 손가락을 넣어 탐색을 시작합니다. 동전 몇개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는 수 없이 미니 봉지에 든 군밤을 집어 듭니다.

돌도 소화시킬 것 같은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때인지라 간에 기별도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입맛은 다셨으니 그걸로 만족해야 할 듯 싶습니다.

팔짱을 낀 젊은 연인들이 손을 호호 불면서 급한 걸음으로 들어섭니다.

다. 여자의 불은 마치 군밤 구워내는 연탄불에 쪼인것 처럼 불이 별경게 달아 올라 있습니다.

주머니 받거나 하면서 알콩달콩 군밤 나눠 먹는 그들의 모습이 또한 참 행복해 보입니다.

잠시 후 나이 지긋한 어른이 나타나서는 손주에게 사다 주겠다고 돈을 내줍니다.

뜨끈뜨끈한 군밤 봉지를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어른의 가슴은 손주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추위를 뚫고 끊임 없이 찾아 주는 군밤 고객들로 인해 군밤 아저씨는 추위도 잊었나 봅니다.

구수함을 간직한 군밤으로 인해 겨울날이 오히려 훈훈해 질 수 있음을 알게 해 준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겨울과 군밤은 어찌 보면 뿔뿔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다리 펴고 앉아 식구들 끼리 오손도손 밤을 까먹는 풍경 또한 정겹습니다.

겨울이 아니면, 그리고 군밤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정경이기에 군밤이 기여하는 겨울 풍속도는 대단하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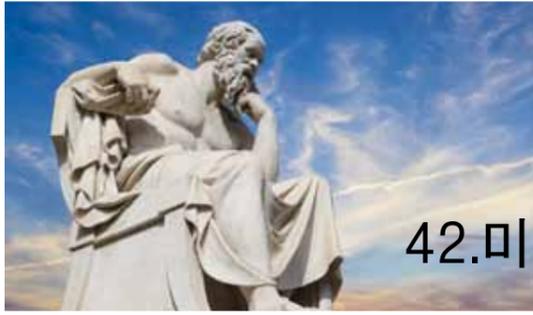
사실 외부적 기온이 차가워서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훈훈함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게 겨울이 아닌가 합니다.

춥기에 행여 떨고 있을 이웃이 없나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겨울의 대표 간식 군밤이 효자 노릇하겠다고 자청하니 그 또한 모른다 할 수 없어 군밤 예찬을 펼치는 것입니다.

겨울이면 그렇게 맛있고 멋진 군밤을 옆에 두고 그 옛날을 생각하며 지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밤을 대하면 늘 생각되어지는 지난 날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군밤을 까먹으며 정스럽게 지내던 그때, 그때를 아시나요.



장동헌 기자의 <세계 인물> '아담에서 저커버그까지'

42.미래학의 대가 앨빈 토플러

지난 1980년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이라는 책이 출간돼 나왔을 때 이 저작물은 전 세계에 걸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당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고 또 예견하지 못했던 미래상에 대해 날카로운 필치와 정확성으로 이른바 '미래학'이라는 분야에 불을 지핀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앨빈 토플러(영어: Alvin Toffler, 1928년 10월 3일 ~ 2016년 6월 27일)는 미국 뉴욕 태생의 작가이자 미래학자로, 디지털 혁명, 통신 혁명, 사회 혁명, 기업 혁명과 기술적 특이성 등에 대한 다수의 저작으로 유명하다.

토플러는 뉴욕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고 이후에는 미국 중서부 지방에서 5년간 노동자로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의 현장에서 일했다. 한편 앨빈의 아내인 하이디 토플러는 대학시절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생일 때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중서부지방에서 토플러가 노동자로 일하는 동안 하이디는 알루미늄 공장에서 일하면서 노동조합의 간사로 일하기도 했다. 이때 노조의 서포트를 받는 신문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펜실베이니아 데일리지의 워싱턴 지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3년 동안은 미국 의회와 백악관 출입기사를 하게 되었다.

이후 뉴욕으로 돌아가 포춘(Fortune)지의 노동관계 칼럼니스트로 일했고 이때부터 경제와 경영 그리고 기술과 기술에 의한 영향에 대한 관심을 넓혀갔으며 이에 대한 저술을 시작했다. 이후 토플러의 관심은 사회의 변혁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21세기 군사 무기와 기술의 발달에 의한 힘의 증가와 자본주의의 발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 포춘을 떠나게 되면서 IBM사의 의뢰로 사회와 조직이 어떻게 컴퓨터로부터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논문을 썼다. 이때 그는 컴퓨터 업계의 전설적인 대가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교류하게 되었

으며 제록스사는 제록스 연구서에 대한 기사를 의뢰하고 AT&T는 전략상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 발전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고 정부의 AT&T 해체 명령을 이보다 십 여 년 전에 예측하기도 했다. 토플러는 1960년대 중반에 <미래의 충격(The Future Shock)>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이 책으로 인해 토플러의 작가이자 강사로서의 경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6년에는 탐 존슨과 함께 토플러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를 통해 그가 가진 아이디어들을 실현화하는 활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멕시코,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의 정부들과 비정부간단체,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그의 아내이자 공동저자인 하이디 토플러와 함께 활동했으며, 말년에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했다. 2016년 6월 27일 사망하였다.

토플러는 말년에 코넬대학의 객원교수로 재직하였으며,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의 일원이자 러셀 세이지 재단의 객원 학자로 지냈다. 또한 맥킨지 재단의 경영학 저서 활동의 공로로 상을 받았으며 다수의 명예 Ph.D 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는 미국 정부의 일반회계감사 자문위원회에도 참여했고 과학 발전을 위한 미국인 협회의 회원이었다. 또한 전략 연구 국제 연구소의 회원이었다. 2006년에는 브라운 대학의 '독립의 상' 수상자로 지명되기도 했다. 토플러는 "사회는 노인을 공경하고 정직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회는 병원에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회는 그저 인식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감성적이며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재주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저 데이터와 컴퓨터만으로는 이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한다. 그의 대표저

서 <제3의 물결>에서 토플러는 세 가지 유형의 사회를 설명하고 이를 "물결"에 비유했다.

첫 번째 물결은 농업 혁명에 의한 수렵 채집의 문명이 농경사회로 대체되는 혁명적 사회 변화이다. 두 번째 물결은 핵가족, 공장 같은 교육시스템과 기업의 주요 요소를 가진다. 토플러는 "제2의 물결의 사회는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으며 대량생산, 대량분배, 대량소비, 대량교육, 대량휴양, 대중문화와 대량살상무기들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것들은 표준화, 중앙화, 집중화 그리고 동기화를 통해 엮여지게 되며 우리들이 관료주의라 부르는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세 번째의 "제3의 물결"은 후기 산업화 사회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제2의 물결의 사회에서 제3의 물결의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제3의 물결은 흔히 불리듯 정보화 사회 같은 이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탈 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있을 것이라고 토플러는 예측했으며 "변화는 탈선형화 되어 있으며 거꾸로도, 앞으로도 그리고 옆으로도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앨빈 토플러의 선견지명은 21세기 오늘날 대부분 적중했고 이것이 그를 미래학의 대가로 여기는 이유이다.



정육점 KOKI

Boucherie & Vente en gros de Viande

\$25 이상 배달가능
소정의 배달료 \$3 - \$5(거리에 따라)

영업시간 : 월 - 수 11:00AM - 7:00PM
목 - 토 11:00AM - 8:00PM
일요일 휴무

'고기 좋다' 소문났습니다!
착한 정육점 '고기'에서 구매하세요

6400 C Rue St-Jacques West, Montreal, H4B 1T6 (가고파 옆)

**\$50 이상
무료배달**

각종 특수부위 판매

문의 : 514-548-2426 www.facebook.com/montrealkoki

재키의 자동차 여행



겨울과 자동차



박재길

오늘 드디어 눈이 왔다. 물론 작은 눈은 며칠전에 왔지만 겨울다운 눈은 오늘이 처음인데 나가고 싶지 않은 몸을 이끌고 종횡무진(?) 도로를 누비다 보니 역시 운전의 재미는 겨울이 아닌가 각각이 들기도 한다. 겨울운전의 묘미는 말그대로 하얀 눈속을 아무 생각없이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다 보면 묘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음악도 상대적으로 빠른 템포를 선호하지만 겨울에는 차의 속도에 맞춰 느린 음악이 어쩌면 단조로운 바깥풍경을 한층 운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저속으로 운행하다 보면 나도 상당한 모범운전자라는 착각에 빠지기 좋은 계절이 또한 겨울이다.

덤으로 눈길에 미끌어져 여름이면 전문운전자나 가능한 드리프트를 원하지 않더라도 하게 해 주기도 하니 역시 운전의 맛은 겨울이 아닐지. 그런데 이곳 저곳 사고로 멈춘 차들과 이처럼 굵은 날씨에도 굳건히 티켓을 끊는 경찰차를 보노라면 한편으로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커진다. 특히 램프를 오갈 때 느끼는 위험은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한다. 아무리 사륜구동이고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멈추는 것은 거의 전문이나 후륜차와 같은 거리임을 잊는 운전자들이 뒤에서 굉장한 스피드로 다가 올 때의 그 불안감.. 겨울이 주는 스릴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헛갈린다.

현명한 사람은 결코 자동차를 과신하지 않을 것은 당근. 어느 신문에 현명한 사람이 절대 말하지 않는 8가지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도 한국 국민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다. 캐나다에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으니. 잠깐 소개를 하자면 1등이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란다. 피곤함은 자신이 제일 먼저 아는데 말이다. 정말 걱정이 된

다면 커피나 비타민 C를 건넌다. 2등이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그러면 이전에는 뚱뚱했나? 차라리 '멋져 보인다'로 하란다. 그다음 연인과 헤어진 친구에게 "솔직히 네가 아까웠어"...말하면 입 아프다. 그다음 "너 원래~하잖아." 고정관념을 싫어한다면...그리고 "나이에 비해 동안이네요"...음 필자도 누가 동안이라 그러던데. 그다음 "전에도 말했듯이" 교시하는 느낌? 그다음 "잘 해봐!" 좋게 들리면 성격 좋은 친구. 물론 억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아무거나" 음식 먹는데 아무거나...여기에 필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뭐든 잘 먹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 없어서 못 먹는데. 각자 자신에 맞게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보다 더 심한 말도 받아들이는 친구라면 천금과 바꾸는 것보다 나은 것은 당근. 좋은 친구 하나 열 형제 자매 안 부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겨울에 가장 부러워지는 것이 당근 사륜 구동에 하체가 높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차 일수록 기름도 많이 먹고 일년에 정말 운전하기 힘든 날 몇 번이라고... 자위하지만 여전히 부러운 건 사실이다. 특히 눈이라도 조금 쌓인 주차장소를 마주했을 때 다가오는 불안감은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른다. 거기에 넣었다 가는 CAA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TESLA X를 가지고 있다면 겨울 운전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특히 걸 워 도어를 갖춘 이차의 모습은 기존의 TESLA S에서 보던 세련된 세단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확인할 것이다. 문제라는 자격이 좀 비싸다는 것. 그런데 독일에서 한 부부가 자신의 차를 렌트하는 사업을 하는데 다임러자동차(벤츠)가 이차를 렌트 해서 분해하고 심하게 데미지를 입힌 다음 다시 조립해서 차 주인에게 반납을 해서 화제가 되고있다. 그 수리비용이 미화 1만8

천 6백불이 나온 것을 합쳐서 이차를 다시 렌트 주지 못하고 렌트 계약을 어긴 것 그리고 수리비용을 모두 합산 11만 8천불을 다임러와 렌탈 중개인에게 청구 했다 한다. 다임러 측에서는 경쟁사 회사 차를 뜯어 보고 확인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 했더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천하의 벤츠가 Tesla의 노하우를 궁금해 했다는 것이 바로 전기 자동차의 미래를 그들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스페인과 벤츠 본사를 거쳐서 진동과 촉각과 촉사 테스트까지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렌터카를 반납하다니 어이가 없다. 그 부부가 그 돈 모두를 받을 거라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기사로 이해외도픽은 끝나는데 나중 결과가 나오면 다시 글을 올릴까 한다. 세상은 넓고 별 사람이 다 많지만 이번 해프닝은 결국 Tesla의 전기자동차 기술을 도둑질 하려는 벤츠의 도둑 심보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차라리 직원이름으로 차를 사고 분해해 분석했다면 욕이라도 먹지 않을 텐데 말이다.

아무튼 목적을 위해서라면 해적질과 스파이짓도 마다 않는 자동차업체의 이전투구는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번 충전으로 350km 이상을 가는 자동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머지않아 500km를 넘어서는 차들이 여러 대 나온다면 내연기관의 자동차와의 경쟁은 더 이상 무의미 할 것이다. 특히 LG에서 개발 했었던 20분 급속충전으로 350km 이상 주행 가능한 배터리의 등장은 휴게소에서 잠시 커피한잔 마시면 충전이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전기자동차의 기하 급수적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촉매제가 될 거라 확신한다. 겨울에는 전기자동차의 방전이 빨라서 걱정하던 것도 몇 년 안에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겨울 왕국의 엘사 처럼 Tesla x를 타 보는 날이 내 인생에도 올까?

재정상식



최광성

이민 재정 수상(隨想)

누구도 이민 삶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래도 필자는 직업상 십수년이상을 수많은 이민자들, 그 중에서도 이민은 목적을 중심으로 재정을 새롭게 캐나다식으로 가다듬는 많은 분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인지 이민의 삶을 캐나다식 재정으로 바꿨을 때 마음과 현실의 안정이 생겨 이민 목적을 이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보아왔다.

확실한 것은 아무리 허물없이 이민 인생사를 나누고 동고동락할 것 같은 옆 사람도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순간 서로 다른 길로 갈 이민 인생이라 옆 동료와 합의한(?) 내가복음식 재정 방향보다는 각자의 이민 목적과 재정상황, 그리고 각자 우선순위에 따라 캐나다 식 재정의 금자탑을 만들곤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답인것 같다.

물론 어드바이서와 우선 순위, 규모, 그리고 투자 방법등을 상의하며 꽃 가꾸듯이 하는 것이 요령이긴하다. 그래서 필자의 고객들은 모두 독립적이다. 본인들의 이민 목적에 따라 제각기 다른 우선 순위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는 데, 그 증거로 수백의 필자 고객 중 이제까지 아무도 필자에게 "옆 집 돌쇠네가 부부용 또 자녀용으로 투자한 것, 뭘지 잘 모르지만 그것과 똑같은 크기로 아니면 조금 더 쎈 거, 큰 거로 해 주세요" 하는 분들 정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형제나 자매끼리도 서로 뭘 했는지 필자에게 묻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고객의 비밀이니 "직접 물어보세요" 했지만 필자의 고객들은 자랑스럽게도 모든 것을 본인들이 셋업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사회주의 캐나다에서 장려하며 또 이를 따를 때 주는 여러 혜택들을, 특히 세금 혜택들을 신뢰해 남은 인생을 필자와 함께 팀 플레이로 매년 성실하게 쌓아 나가는 사람들이다.

필자 고객 중 적지않은 분들은 캐나다에서 가족들과 살기로 마음먹은 순간이 가장 투자에 호기심을 깨닫고는 유학생이나 가족, 워크퍼밋신분일지라도 투자를 서슴지않았다. 바로 썩잡는 게 매고 캐나다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도 아니고 영주권이 나와도 금덩어리가 내게 굴러오는 것도 아니고, 워크퍼밋 된다고캐나다에서 월급이나 사업자금 대 주는 것도 아니기에 캐나다가 나와 내 가족에게 왜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으면(혹 중간에 고향 앞으로해도 밀쳐야 본전, 아니 그래도 좋다), 캐나다 재정 시스템의 장점을 집중 연구한 후 캐나다식 재정으로 돌격하는 사람들이다.

5-6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지금 시작하는 40 대중반 또래보다 약 30%-40%이상 남은 평생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효과는 더 크게 거둔 현 주소를 확인한 후 서슴없이 남은 30%-40%에 더 보태 나중에 그 차이가 가장 커질 자녀를 위한 원대한 계획을 시작했다. 훗날 몬트리올에 얼마 안되는 옆 동포들과 키재기 아니면 대책없이 그저 서로 보듬는 자기 위안을 삼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아예 다른 엄청난 큰 차이가 날 것이다. 캐나다, 물론 천국은 아니라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하지않는 믿음직한 왕국복이! 인생을 걸고 따르는 사람들은 편안한 등에 태워 결승선까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모셔다 줄 지구 상에서 말할 마지막 나라! 그 분과 함께 캐나다에서 모두 Merry X-Mas!

코리안 뉴스위크
 몬트리올 514-993-2121
 오타와 613-254-9049

새 메뉴를 소개합니다

후라이드, 양념치킨
 닭볶음탕, 불닭
 홍합탕, 오징어볶음, 어묵탕

생맥주와 함께

메뉴도 안보고 시키시는
짜장, 짬뽕, 탕수육

구인 흡서빙, 디쉬와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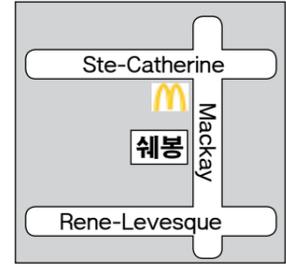
중화요리전문점
쉐봉

영업시간
 오전 11시30분 ~ 밤10시
 금, 토 : 밤 12시
 (수요일 휴무)

콤보메뉴(2인기준)

1. 탕수육+짜장 2개
2. 사천탕수육+쟁반짜장
3. 양장피+쟁반짜장
4. 팔보채+쟁반짜장
5. 간풍기+쟁반짜장
6. 고추잡채+쟁반짜장
7. 탕수육+짜장면+짬뽕

1236 rue Mackay, (514)935-8344



디즈니, 21세기폭스 인수 세계 미디어시장 '지각변동'



57조원 빅딜 성사...美정부 승인 여부가 '최종 관문'
마블 캐릭터 한데 모은 디즈니, 명실상부한 '콘텐츠 제왕'으로

월트디즈니가 14일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제국' 중 일부인 21세기폭스의 영화·TV 사업 부문 등을 524억 달러(약 57조1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와 AP 통신, CBS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온 디즈니는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 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면서 다양하고 방대한 전승 플랫폼과 채널, 콘텐츠, 캐릭터를 보유한 강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하게 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최강자인 넷플릭스와 방송·영화 콘텐츠 사업에 눈길을 돌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정보 기술) 기업들을 견제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디즈니는 이번 계약으로 영화 아바타, X맨, 판타스틱 포, 데드풀 등의 블록버스터 히트작을 제작해온 21세기폭스 영화사와 20세기폭스텔레비전, FX 프로덕션, 폭스 21 등의 방송사·TV 프로그램 제작사·케이블 채널 등을 보유하게 된다.

또 OTT인 '홀루', 유럽 위성방송 '스카이'의 최대 지분과 인도의 거대 미디어 그룹 '스타 인디아'도 인수한다.

디즈니는 137억 달러(약 14조9천억 원)에 이르는 21세기폭스의 부채도 떠안을 예정이다.

그러나 폭스뉴스와 폭스 비즈니스

스 네트워크, 폭스스포츠 1·2, 빅텐 네트워크, 더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사와 일부 스포츠 채널은 디즈니의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미국 최대의 케이블방송통신업체 컴캐스트도 21세기폭스 인수를 놓고 디즈니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오다 전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다.

세계 최대 영화 제작사인 디즈니는 이번 21세기폭스 인수를 통해 명실상부한 캐릭터의 제왕 자리를 굳힐 전망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디즈니는 과거 마블 인수로 할리우드 최강 캐릭터인 어벤저스 대원들과 닥터 스트레인지 등의 캐릭터들을 보유했지만, X맨과 같은 일부 마블캐릭터는 21세기폭스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 앞으로 다변화된 채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 공중파와 케이블 TV 방송 대신 안방극장을 점령할 것으로 전망되는 OTT 서비스 시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점도 이점으로 평가된다.

마지막 남은 관문은 정부 당국의 승인 여부다.

미 법무부는 국내 2위 통신사 AT&T가 미디어그룹 타임워너 인수를 추진하자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타임워너가 먼저 CNN을 다른 곳에 매각해야만 AT&T의 인수·합병 계약을 승인해주겠다고 제정한 상태다.

영국 학자 “카놀라유, 기억력 등 뇌기능 저하에 영향 가능성”



남아공의 카놀라 농장

동물실험에서 체중증가·치매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흔히 쓰이는 식용유인 카놀라유가 뇌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학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영국 템플대학 의대 도메니코 프라티코 교수팀은 동물실험 결과 카놀라유가 치매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프라티코 교수팀은 올리브유로 같은 실험을 해 뇌 속 치매 유발 물질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개선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카놀라유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면서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증거도 없이 꼭 건강에 좋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유전자조작으로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만든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아직 나타나기 전인 생후 6개월 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6개월동안 한 쪽엔 일반 먹이를, 다른쪽엔 카놀라유를 많이 넣은 먹이(사람으로 치면 하루 두 숟가락 분량)를 줬다.

생후 12개월째에 각종 검사를 했다. 우선 카놀라유 그룹의 체중이 평균 18% 무거웠다. 또 미로실험 등을 통해 작업기억력, 단기기억력, 학습 능력 등을 측정한 결과 카놀라유 그룹의 작업기억력 장애가 일반식 그룹에 비해 훨씬 더 심했다.

뇌 조직을 검사하니 두 그룹 간 아밀로이드 베타 등의 구성이 달랐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신경세포

사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이 물질이 응집을 일으켜 플라크 형태로 쌓이면 뇌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 통로가 차단돼 뇌세포가 죽고 치매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 중에서도 1-42는 더 해롭고 용해가 잘 되지 않는데 1-40은 용해도 더 잘되고 1-42에 대한 완충역할을 한다.

조직 검사에서 카놀라유 급식 쥐들의 경우 아밀로이드 베타 1-40이 크게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유해한 1-42에 뇌신경세포들이 둘러싸이면서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더 많이 쌓였다.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된 알츠하이머 환자 뇌 신경

아울러 이로 인해 신경세포간 접촉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카놀라유 급식 쥐들의 시냅스가 대폭 손상됐음을 시사한다. 시냅스는 신경세포(뉴런)간 또는 신경세포와 다른 세포간 신호를 연결해주며 기억을 만들고 다시 불러내 사용하는 일에 관여한다.

프라티코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카놀라유를 일정 량 이상 장기간 섭취하는 것이 적어도 뇌 건강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 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물성'이어서 건강에 좋다고 말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카놀라유가 이런 뇌신경 변화를 일으키는 최소한의 노출 기간과 양을 계산하기 위한 실험과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알츠하이머 발병의 또 다른 원인인 타우 단백질 과인산화와 신경섬유 엉킴에 카놀라유가 영향을 주는지도 규명할 예정이다. 이번 6개월 급식 실험에선 타우 단백질에 대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아 더 장기기간 실험이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7일 발표됐다.

DuraA

architecture design

캐백 면허 건축사 |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 미국_캐나다 친환경 인정 기술사 (건물설계+시공)

Won Chul KIM

architect licensed by OAQ | architect DPLG France | LEED AP (BD+C) by US_CAGBC

건축 설계 (문화, 영업, 교육, 근린생활, 주거, 업무시설, 친환경 건축물 등)

Architectural Design (cultural, business, educational, institutional, mercantile, residential, environmental design, etc.)

인테리어 디자인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가구디자인 등) Interior Design (renovation, remodelling, furniture design, etc.)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디자인 컨설팅, 건설 매니지먼트, 행정대행 업무)

Project Management (design consulting, construction management, agency business for administrative works)

514-583-7862

www.duraad.com

wkim@duraad.com

125 rue Chabanel O. b211, Montreal (QC) H2N1E4

김원철

추우면 소변 자주 마려운 이유



나게 된다.

추운 날 방광의 반응은 다소 민감해진다.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신장 위에 있는 한 쌍의 내분비 기관인 부신에서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데, 소변으로 배출되는 이 둘의 호르몬 양도 증가한다. 그리고 이들 호르몬이 방광을 수축시켜 실제 소변이 자주 마렵기도 하고, 마렵다는 느낌도 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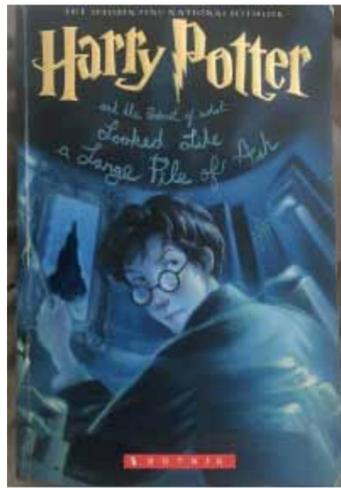
실제로 일본 연구팀의 쥐 실험 결과를 보면 추운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방광의 수축을 지배하는 평활근인 배뇨근이 지나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추울 때 소변을 보면 오싹함을 느끼는 것도 방광과 관련 있다. 방광에는 흔히 오줌보라 불리는 중심 부분이 따로 있는데, 이 상태의 소변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소변이 밖으로 나오면서 바깥의 추운 환경과의 온도 차이로 몸이 자연스럽게 떨리게 되는 것이다.

요즘처럼 추울 때는 움직이기도 귀찮은데 자주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다. 추우면 왜 소변이 자주 마려울까. 의학적으로는 낮은 기온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신장(콩팥)과 방광, 이 두 기관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신장의 반응이다. 우리 몸 속 혈액은 신장 속으로 들어가 그곳을 통과하여 다시 온몸을 도는 과정을 하루 30~40번 정도 반복한다. 신장은 혈액의 여과, 즉 혈액 중 노폐물을 걸러서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자기 내부를 흐르는 혈액 속의 수분을 필요한 것이든 불필요한 것이든 일단은 모두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수분이나 영양소, 이

온만을 나중에 재흡수 한다. 노폐물을 그대로 수분과 함께 내보내는 것이 바로 소변이다. 우리 몸에 유입되는 수분과 배출되는 수분은 거의 같은 양이라서 신체는 늘 일정한 수분의 양이 유지되면서 평형 상태에 놓여있다. 사람의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배출되는 수분의 양은 대략 2~2.5리터 정도다. 이 수분은 소변, 대변, 호흡에 포함된 수증기, 그리고 땀 등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 우리의 몸은 땀을 흘리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만큼 신장이 수분의 재흡수를 조정하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수분의 양이 늘어

1년 5개월만에 나온 해리 포터, AI가 썼다



예측 프로그램에 롤링의 전작 7편의 내용을 입력했다. AI가 롤링의 문체와 줄거리 전개에 알고리즘을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학습을 마친 프로그램이 단어 배열을 제시하면, 여러 작가가 이를 참고 삼아 문장을 구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후속편의 제목은 '해리 포터와 큰 잿더미처럼 보이는 것들의 초상화(Harry Potter and the Portrait of What Looked Like a Large Pile of Ash·사진)'다.

AI가 쓴 이 작품은 일반적인 소설의 작법을 따르지 않는다. 소설의 도입 부분은 "성벽의 지반이 마력이 극대화된 바람에 소용돌이 쳤다. 바깥 하늘은 피로 가득찬 거대한 검은 천장이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소설의 등장인물인 론이 시끄러운 탭댄스를 추다가 거미페로 변해 헤르미온느의 부모님을 먹으려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버지는 "완성작이 일견 영혼 없고 두서없어 보이지만 롤링만의 경쾌하고 마법적인 문체의 희미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원작자를 모방한 다른 팬픽션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속편 전문은 보트닉 스튜디오 홈페이지(www.botnik.org)에서 볼 수 있다.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의 소설 해리 포터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지만 팬들은 여전히 해리 포터의 눈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쓴 소설 해리 포터 속편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영국의 극작가 잭 손이 소설을 각색해 올린 연극 <해리 포터와 저주받은 아이>가 나온 지 1년5개월 만이다.

미국의 IT매체 버지는 보트닉 스튜디오가 자체 개발한 AI 텍스트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리 포터 후속편을 만들었다고 12일 보도했다. 보트닉 스튜디오는 작가 출신이 만든 예술 단체로, '기계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을 추구한다. 보트닉 스튜디오는 자사의 텍스트

올해 구글서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 '허리케인 어마'

올해 구글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허리케인 어마'로 나타났다. 구글 트렌드는 13일 올해 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검색된 상위 10개 단어를 집계한 결과 '허리케인 어마'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허리케인 어마는 지난 9월 카리브해를 속대밭으로 만들고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했다. '아이폰8'과 '아이폰X'은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NBC 간판앵커 맷 라우어(4위), 영국의 해리 왕자와 결혼하는 미국 배우 매건 마클(5위), 올해 사망한 미국 록 가수 톰 페티(7위), 록밴드 린킨파크의 보컬 체스터 베닝턴(9위) 등도 10

위 안에 포함됐다. 성추행 고발 캠페인인 '미투(#MeToo)'에 연관된 인물들도 자주 검색됐다. 인물별 검색어 순위에서 미투 캠페인을 촉발시켰던 미국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4위), 아동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배우 케빈 스페이시(5위), 성추행 제작자와의 동업을 거부한 배우 겔 가돗(6위) 등이다. 1·2위는 라우어와 마클, 3위는 나디아 토파였다. 토파는 이탈리아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핵심 혐이 진행되고 있다는 오보를 내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7위),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9위) 등도 있었다. IT전문매체 악시오스는 구글의 이번 발표를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빠진 게 흥미롭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 한 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묻은 질문(what is...) 항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단어가 많았다. 1위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DACA 프로그램이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 이민정책의 하나로 DACA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상에서 'coverage'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이는 '코브페페(Covfefe)' 등도 10위권에 올랐다.

日, 깨져도 원상회복 가능한 유리 개발

깨져도 깨진 단면을 붙이기만 하면 원래의 강도로 복원되는 유리 재료가 개발됐다. 유리는 일단 깨지면 재료를 구성하는 분자 간 결합이 끊어져 고온에서 녹이지 않으면 재이용이 어렵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東京)대학 야마다 다쿠조(山田卓三) 교수 연구팀은 상온에서 깨진 단면을 1~6시간 맞대 붙이면 단면이 붙는 것은 물론 원래의 강도도 회복하는 소재를 개

발했다는 논문을 14일자 미국 과학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접착제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딱딱하고 바삭한 촉감의 물질에 저절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자기복원기능이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폴리에테르티오 요소"로 불리는 반투명 신소재인 이 물질로 유리를 만들자 깨져도 수십 초 동안 단면을 맞대 붙이기만 하면 원래대로 붙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삼계탕**을

막걸리 개시

다운타운에 오시면
불고기하우스를 찾으세요

시원한 생맥주도 있습니다

백삼을 듬뿍 넣고 푸욱~ 달였습니다

불고기하우스에서

푸짐한 안주
10여종 전골류
20여종 요리

<영업시간>
오전 11시 부터

저녁 웨이터/웨이츄러스 구함

2127 Ste-Catherine O.
전화 : 514-935-9820



먹거리와 건강

이미정 (한의사)



남성 불임 (Male Infertility)-2

3. 종류는?
 1차성 불임 ; 과거에 한번도 임신 을 해본적이 없는 불임
 2차성 불임 ; 과거에 임신을 해본 기왕력이 있으나 그후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
 4. 진단은 ?
 불임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 가 35~ 40% 정도로 흔하므로 여성 검사와 함께 남성 검사도 같이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액 검사 ; 정액을 받아 정액의 색깔, 양, 점도, 정자 수, 운동성, 정자 형태 등을 관찰하여 평가한다.
 정자기능 검사 ; 햄스터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함께 배양시켜 정자의 침투 능력을 측정한다.
 항정자 항체 검사 ; 정자는 항원성이 매우 높지만 정상에서는 혈관 고환 방어막에 의해 인체의 면역 기전으로부터 격리, 보호되고 있으나 정관의 감염이나 수술, 고환 손상등으로 이 방어막이 깨어질 경우 정자를 공격하는 항체의 일종인 “ 항정자 항체 “ 가 형성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한다.
 5. 치료는 ?
 불임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로 많은 불임 환자들이 진단 과정중 에 또는 치료를 잠시 쉬거나 휴가기간 중에 혹은 심리 치료를 받는 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정관 폐쇄에 의한 불임은 수술을 시행하거나 고환에서 주사기로 정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을 시행할 수 있다.
 정자 이상에 의한 경우 생식샘자극 호르몬 투여나 체외수정 (필요시 기준된 정자를 이용)을 시행한다.
 6. 꼭 알아두어야 할것은 ?
 남성의 경우 정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예로 살충제)
 알코올은 정자 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피하거나 양을 줄이도록 한다.
 니코틴은 정자를 변화시켜 임신 성공률을 떨어뜨리므로 금연한다.
 음낭을 시원하게 유지한다. 열은 정자 생성을 억제 시켜 정자 수를 감소에 원인이 되므로 목욕중 음낭에 열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하며 조이는 속옷 및 옷을 입지 않도록 하고 고환은 몸에 딱 붙지 않고 떨어지게 하여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다.

무시하면 안 되는 신체 증상 6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동차를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동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곳저곳을 점검해 봐야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우리 몸에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건강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간과하지 말고 잘 살펴봐야 한다. '액티브비트닷컴'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건강 이상 증상 6가지를 소개했다.

1. 가슴 통증
 몸에 가스가 차 있을 때에도 가슴 통증(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슴에 생긴 통증이 팔을 따라 아래로 퍼지거나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동반한다면 병원을 가봐야 한다. 이는 심장마비의 징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산 역류 증상일 수도 있다. 위산 역류는 심장마비만큼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전문의에게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심한 두통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

이 갑자기 생겼다면 빨리 구급대를 부르거나 주위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가야 한다. 치명적인 동맥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맥류는 혈관이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이런 동맥류는 우리 몸의 어느 동맥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 뇌수막염, 측두 동맥염, 대상포진 등도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몇 주나 몇 달간 계속되는 약한 두통은 뇌종양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

3.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하거나 생활방식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빠진다면 결코 축하할 일이 아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6개월~1년 사이에 체중의 5%가 빠진다면 병원에 가서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3kg 정도인 사람이 이렇다 할 시도 없이 짧은 기간에 3.6kg정도가 빠진다면 어떤 질병이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파킨슨병, 치매, 당뇨

병에 심하면 암 같은 질병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상선(갑상샘) 기능 항진증도 원인이 된다. 갑상선이 과잉으로 작동을 하면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여기에 우울증도 체중 감소를 초래한다.
 4. 숨 가쁨
 고지도 아니고 힘든 운동을 막 끝낸 것도 아닌데 계단을 몇 개 오르면서 숨을 헐떡거리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렴, 폐 혈전이 있으면 숨이 찬 증상이 발생한다.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도 원인일 수 있다.
 5. 흔치 않은 출혈
 궤양이나 치질, 대장암이 있으면 혈변이 나올 수 있다. 혈뇨는 방광이나 신장(콩팥)에 염증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폐암이나 식도암이 있으면 구토를 할 때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다. 기침 등을 할 때 혈액을 토해내면 폐결핵이나 기관지염, 폐렴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6. 붓는 다리
 발목이나 다리가 붓는다는 것은 심부전이나 신부전, 간부전 등이 원인일 수 있다. 과체중이나 류머티스 관절염, 다리 염증, 림프부종 등도 이런 증상을 유발한다. 특정 약물이나 가벼운 부종, 임신이나 소금을 너무 섭취했을 때도 다리가 부을 수 있다.

전기 공사

BUMA ELECTRIQUE (뷰마전기)

- 가정용/상업용/ 산업용 전기공사
- 서비스 내용
 - > 배전반 신규, 교체 및 용량 증설 작업
 - > 레노베이션 전기 공사
 - > 조명 공사 및 누전 공사
 - > 전기 콘센트 / 전기 히터 / 전기 제품 설치
 - > 내외선 신설 및 증설
 - > 전기 고장 수리



514-928-0423 (전기기술자 : 임범철)

e-mail : bumaelectrique@gmail.com




밝고 건강한
우리아이

태권도

유.초.중.고, 남녀 성인부 - 개인.소그룹 지도
 품세 겨루기 챔피언, 사범양성반
 여성, 시니어 특별그룹반 (오전.오후반)



권장원 태권도 라이온키즈 아카데미

www.kwontaekwondo.com 전화 514-553-8673

f KwontaekwondoLIONkidsAcademy



<권장원 관장>
 캐나다 태권도 국가대표
 생장 사관학교 태권도 사범
 주니어 캐나다 챔피언 코치
 대한민국 장관 표창
 한중미.캐나다 교류 무역회사 운영

코리안 뉴스위크

오타와 섹션
1086호 2017년 12월 15일

Korean Newsweek

제보/기고/광고문의: jyshinottawa@gmail.com (613) 668-3475

오타와 지역 기관 및 한인 종교단체

오타와 한인회	김범수	(613)327-8536	주 캐나다 대사관	신맹호	(613)244-5010
오타와 상록회	엄경자	(613)230-5500	한국전참전용사회	Bill Black	(613)726-5254
오타와 양자회	박민숙	(613)825-5203	주님의 교회	김영례	(613)408-1737
오타와 한글학교	정수영	(613)415-6029	오타와 한인교회	강석제	(613)236-4442
코원 오타와지회	이선미	(613)864-2873	오타와 세소망교회	성인수	(613)790-0036
평동 오타와지회	한문중	(613)795-8895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김경웅	(613)314-4113
과기협 오타와지부	김근수	(613)558-5138	한국순교성인 전주교회	김현철	(613)237-5528
칼튼대 한인학생회	한용환	(514)585-0904			
오타와대 한인학생회	곽희원	(647)263-9137			
한인청년학술협회	이승기	(613)890-9307			
한웨이 소사이어티	이은혜	(416)201-2188			
한인장학재단	최정수	(613)729-0965			
카한협회	이영혜	(613)736-8088			

신지연

오타와 지국장

jyshinottawa@gmail.com



오타와
한인회

ottawakorean.ca
ott.korean@gmail.com



코원 오타와

kowinottawa.ca

문의: kowinOttawa@gmail.com



Tae E. Lee
태권도

www.taelee.ca

(613) 722-6133

1300 Carling Ave

코리안 뉴스위크

jyshinottawa@gmail.com

613-668-3475



▲(위)윤창배 대령의 인사 ▲(왼쪽 위에서 부터 아래로)크리스마스 캐andles 부르는 한국전 참전용사, 오타와 한인. 빌 블랙과 신맹호 대사 및 오타와 한인들

감사와 건강을 기원 드리며.....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송년회 개최

국방무관 윤창배 대령은 12월 9일 오후 6시 Royal Canadian Legion BR.593에서 빌 블랙(Bill Black) 한국전 참전용사회 오타와지 회장 및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송년행사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맹호 대

사내외와 오타와지회 명예 회원(연아 마틴 상원의원, 김범수 한인회장, 신지연 기자)의 동료 및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추억의 노래 '아리랑'을 전하며 위문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페셔널, 자영업자, 중소기업분들에게
비즈니스 창업 및 대출 상담해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꿈을 저와 함께 이루세요!
이현수 613-226-2934 *3001
Jamesh.lee@scotiaban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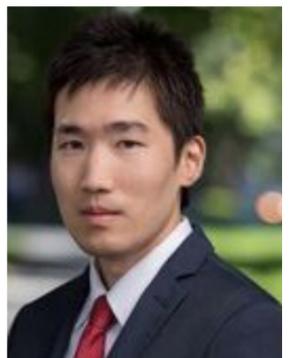


Delaney's Law Firm

543 Somerset St. West, Ottawa

강기훈
변호사

부동산, 공증, 이민, 유산상속
613-233-7000 *1161
ryan@delaneys.ca



Dr. Frank Lee

Family & Cosmetic Dental Care

New patients welcome



모든 환자를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프랭크 리 치과

(613) 232-0392

www.westendsmiles.ca

drfranklee@bellnet.ca

1749 Carling Ave. Ottawa, ON K2A 1C8

Mon~Thur 8:00am to 5:00pm

Contact for Saturday appointment



▲(오른쪽부터)케익컷팅식에 참여한 오타와 한글학교 정수영 이사장, 김범수 오타와 한인회장, 이병준 전 오타와 한글학교 교장, 이용화 오타와 한글학교 교장, 김문옥 전 오타와 한글학교 교장, 박민숙 오타와 양자 회장, 최정수 전 오타와 한글학교 이사장 ▼학예 발표회 -신지연 기자-



뉴스테이지 밴드와 애국가 제창

오타와 한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행사 대성황리에 개최



▲(왼쪽부터) 오타와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훌륭한 실력을 사랑과 정성으로 전달하는 선생님들-우진아(고등부)/이혜련(Gr.1/2 step1)/이효정(JK)/정주영(보조 선생님)/안현주(Gr.3-5 step2)/이용화(교장)박성원(Gr.5/6/7 step2)/ 정수영(이사장)/홍경애(Gr.3-6 step1)/ 김은경 (SK)/정세빈(Gr.1/2 step 2)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행사에 참석못한 이소영(보조 선생님)



▲한글학교 개교 40주년 행사를 멋지게 진행한 우리말 진행의 우진아 선생님과 영어 진행의 JK학생 학부모인 폴린스(Collins) 씨

오타와 한글학교(Ottawa Korean Community School, OKCS 이사장 정수영)가 개교 40주년 기념행사를 12월 9일 오전 10시 Édouard-Bond 초등학교 강당에서 김범수 오타와 한인회장, 황기성 전 오타와 한인회장, 엄경자 오타와 상록회장을 비롯하여 최정수 전 오타와 한글학교 이사장 및 전 오타와 한글학교 교장들과 주캐나다 대사관 김장희 총영사, 조정현 영사, 오타와 한글학교 학부모들이 강당을 가득메운 가운데 대성황리에 진행됐다.

1977년, 오직 자녀 세대의 한글 교육을 위해 자원봉사의 힘으로 세워져 운영되던 한글학교가 긴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0년대 초,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 퍼블릭 스쿨보드(OCDSB)로 옮겼다가, 1996년에 다시 가톨릭 스쿨보드(OCSEB)로 옮겼다. 아쉽게도 최근 몇 년간, 한글학교 이사회와 학부모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한글학교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한글학교 이사회(OKCS Board) 및 학부모협회(Parents' Advisory Group)는 새롭게 한글학교를 개편할 시기가 왔다는 것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게 되었으며, 한글학교 이사회는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한인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야말로, 한글학교를 건강하게 유지해 줄 원동력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하여, 한글학교의 이념과 가장 잘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Ottawa French Catholic School Board(CECCE)와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고, 2017년 9월 9일 초등학교(Édouard-Bond-920 Parkhaven Avenue), 고등부(크레딧 프로그램/ Franco-Ouest High School-411 Seyton Drive)가 새로운 장소에서 훌륭한 새로운 선생님들과 오래전 한글학교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던 이용화 교장 선생님, 변화를 두려워하지않고 오직 학생들만 생각하며 묵묵히 좋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한 정수영 이사장, 자녀들을 위해 성심 성의껏 봉사해온 학부모협회의 하나된 힘, 하나된 마음으로 120여명의 학생과 11여명의 선생님이 오타와에서의 한글교육의 희망찬 새 역사를 세워가고 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오타와 한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행사는 우진아 선생님과 학부모인 폴린스(Collins) 씨의 사회로 오타와 한글학교 약력 소개, 이용화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 김범수 오타와 한인회장의 축사, 오타와 한글학교 학생 입장, 애국가 및 오 캐나다 제창(연주:뉴스테이지 밴드), 선생님 소개, 학년별 학예 발표회, 생일 축하 및 아리랑 합창, 개교 40주년 기념케익 커팅식, 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용화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40년동안 오타와 한글학

교를 위해 수고해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은 한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운다. 자신의 뿌리를 알고 정체성을 찾기를 바라고, 한글학교 수업이 있는 토요일 아침에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글학교 학생중에 노벨상 수상자, 영화감독, 캐나다 정치인, 더 나아가 캐나다 수상도 나오지않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고 전했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함께하게되어 기쁘다고 덧붙이며, 기념행사 참석자들에게 오타와 한글학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김범수 오타와 한인회장은 오타와 한글학교 개교 40주년을 축하 드린다며,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선생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하는지를 아는 학생들로 발전하는 한글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각 학년별 학예 발표회를 통해 노래, 수화로 노래, 율동, 시낭송, 악기연주, 부채춤 공연, 소감 발표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큰 웃음과 감동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 속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행사를 마치고 이용화 교장 선생님은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오로지 아이들의 장래만을 위하여 애쓰고 고생하시고 계시는 덕분에 한글학교 40주년 기념 행사라는 결실을 볼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이러한 순수하고 좋은 마음들은 한글학교 뿐만 아니라 오타와 한인사회에도 좋은 모범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 교장은 부탁드린 사회를 선뜻 맡아 잘 진행해주신 우진아 선생님을 비롯하여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훌륭하게 가르쳐 모든반이 하나같이 좋은 학예 발표를 보여주신 선생님들께도 큰 감사를 드린다며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게 된것은 한글학교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감사 편지를 통해 인사말을 전했다.

정수영 이사장은 오타와 한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와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난 40년간 오타와 한글학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학부모 여러분, 선배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이사님, 선생님,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사랑과 헌신, 보이지 않는 수고였다고 생각합니다"며, 한글학교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항상 책임지고 보살펴주시는 교장 선생님, 짧은 시간 안에 연간 수업 일정과 병행하며 훌륭한 발표회까지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행사를 빛내주신 뉴스테이지 밴드, 우리 고등학교 자원봉사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의 손길로 헌신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고 행사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류은규의 한방칼럼

스트레스와 만성통증

오랫동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어떤 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단지 인정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이 된다. 이것은 진화상으로 살아 남기 위한 몸의 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육이 단순한 긴장 상태를 지나서 경직되게 된다.

근육이 경직되면 근육에 영양공급이 충분하게 되지 못하고,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며, 근육 내 노폐물의 배출이 저하된다. 또한 척추나 관절에도 부담이 가해지며, 척추나 관절이 마모되고 틀어지는 위치 변화가 초래된다. 그러면서 통증이 생긴다.

통증이 있으면 아픈 부위를 보호하려고 하고,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시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이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으로 들어간다.

한편 계속되는 통증으로 마음도 위축된다. 만성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경우 우울증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여러 번 치료를 했으나 낫지 않으면 통증과 우울증은 한결 심각해진다. 몸이 원상태로 회복되지 못할까 불안하고, 병이 더 진행되어서 심각한 질

병이나 마비, 장애, 나아가 죽게 될 거라는 공포감으로도 힘들어 한다. 몸을 못 쓰게 되면 남들에게 의존해서 폐를 끼치게 될까 걱정한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세에 따라서 긴장하는 부위도 달라진다.

어떤 일이 다했을 때 '이를 악물고' 이겨내고 버티려는 사람들은 경추 상부와 턱 관절 전체가 긴장된다. 이를 악무니 이도 약해져서 치료 치료를 자주 받는 경향을 가진다.

'등이 휠 정도로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뒷목에서 어깨로 연결되는 승모근이 긴장되어 있고, 흉부 근육은 수축되어 움츠린 자세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참는 사람들은 은 말 그대로 요통으로 고생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불면증으로 잠을 들기 어렵거나, 잠이 들더라도 중간에 깨어서 다시 잠들기 힘든 분들은 어깨 결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다. 뒷 머리에서 양 어깨로 근육이 뭉쳐 있고, 심한 경우에는 양 견갑골 안쪽으로까지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어깨 결림도 주로 정신적인 긴장,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된다. 마음이 긴장되면 몸도 움츠리게 되고, 그 과정에 목에서 어깨로의 근육도 긴장된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에서부터 기운의 순환이 정체되며,

열이 생겨서 머리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 목에서 어깨로의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긴장된다. 역으로, 몸의 긴장은 마음의 긴장을 유발한다.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움츠리는 자세를 취해보면 마음도 답답하고 긴장됨을 느낄 수 있다.

평소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서 풀어주고,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면 좋다. 근육 긴장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침치료나 부항치료 등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면 한결 가벼워진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긴장되고, 몸이 긴장되어서 마음이 다시 긴장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뒷목과 어깨의 근육 결림을 풀어주면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성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며 여기저기 치료를 받았으나 낫지 않았던 경우는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운동이나 식습관 같은 생활습관 개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집을 바꾸려고 하면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새생명 한의원에서는 보험 청구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오 타 와 새생명 한의원

특진: 불임, 갱년기장애, 알레르기, 남성보양, 청소년 총명탕, 통증, 어린이 성장, 산후조리

원장 한의사 류은규
Ottawa 불임센터 협력한의사
McGill 의예과졸
Mercy College 한의대 수석졸
경희대 국제한의학과 수료
북미 한의사 자격증

* 몬트리얼 교민분은 자세한 전화 상담 후 한약을 배송해 드립니다.

예약, 상담 전화 613-863-6906
106-2211 Riverside Dr. (at Bank St)
www.freewebs.com/newlifeacu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희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 아침이 올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빛,
평화는 이 지구를 감싸는 리본, 용서와 용납, 안전과 존귀를 약속하는 품,
기쁨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세상에 알리는 새벽의 노래,
사랑은 오셔서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가슴에서 타오르는 불꽃.

오타와 한인장로교회
www.okpc.ca : 10 Chesterton Dr, Ottawa : 613-314-4113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맛을 지켜온 한식당, **고궁**
편안하고 고향 같은 한국 전통 실내 분위기
정갈하고 깔끔한 맛과 정성 가득한 메뉴
단체 객실(10-15인수용)
단체 연회석(110석)
넓은 무료 주차장

고궁 Korean Palace

610 Somerset St. W, Ottawa, ON K1R 5K4 Tel:(613) 321-3911 Fax:(613) 321-3922

Fully Licensed
Mon:4:00pm~9:00pm
Tue-Sun:11:00am~10:00pm
www.koreanpalace.ca

한인미용사 레이첼
셋팅파마
손눈썹 연장
눈썹 문신

504 Bank St
월~토 오전10~오후6시
☎ 613-298-8666

오픈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정육 코너

캐나다 정육학교 출신의 경험 많은 정육사가 양질의 고기를 제공합니다.

베이커리

한국 제빵 과정을 수료한 능력이 있는 제빵사가 매일 맛있는 빵을 선보입니다.

정관장

세계적인 건강 제품 정관장이 개장합니다.

조리 식품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조리하는 맛있는 한국 음식 - 잊었던 엄마의 손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Hydro의 송압공사 지연으로 오픈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픈은 1월로 예상되며,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SEOUL Mart
Cell. 204 510 8812 Tel. 613 567 9988
22 Pretoria Ave, Ottawa, ON

정관장 홍삼정
환절기 면역력 증진과 개선은

- 매년 1,000,000명 이상 판매
- 20초에 한 병씩 판매
- 3,000억원 대 연 매출규모
- 2014년 헬스플러스 인증
- 5,000,000명 이상 누적판매

KOREA GINSENG CORP

kw KELLERWILLIAMS. 콘도·하우스 투자용 주택·건물 상가·사무실

- ✓ Keller Williams Canada 1%
- ✓ 2014, 2015, 2016 Keller Williams Medallion Award
- ✓ 오타와 거주 15년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인 부동산 중개사

Direct: 613.447.5007
Office: 613.829.1818
Email: mreed@kw.com

김문옥
Moonok Reed

kw INTEGRITY REALTY KELLERWILLIAMS. 오타와지역 부동산 전문

Wen Lee 이원경
Sales Rep. wenlee@kw.com
613-219-8972

Keller Williams Integrity Realty, Brokerage
2148 Carling Ave. Ottawa, ON K2A 1H1
613-829-1818

전문적인 서비스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박영석 Young Park
(613) 795-1567
ypark@royalpage.ca
4-3101 Strandherd Dr. Ottawa K2G 4R9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부동산 공인 중개인

ROYAL LEPAGE Team Realty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rokerage

"I will find you a home, not just a house."

HARMONY LAW GROUP
khshin@harmonylawgroup.com
TEL 613-709-4851
FAX 613-916-6007

신광훈 변호사
부동산법 상법 회사법
유산/상속법 지적재산권법
공증 및 기타 법률서류 작성

법무사 이경진

캐나다 오타와 & 한국 서울 동시운영

Intro Canadian 오타와 인트로캐나다 유학원

- Le Cordon Bleu 요리학교 무료수속
- 캐나다 전 지역 공립교육청 무료수속
- 캐나다 전 지역 (조건부) 대학 등록
- 오타와 카톨릭교육청 무료수속
- ESL 어학연수 할인 등록
- 명문 Ashbury 사립학교 무료수속

✓ 캐나다 이민·정착 서비스
✓ 1:1 맞춤형 학업·진로 상담

Ottawa 카카오톡 유학 상담 카톡 아이디: introcanada11

225 Paseo Private Ottawa, Ontario, Canada
Office: (613) 680-5577
Call: (613) 400-8149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1 현대트림타워 1824호
문의: +82 (2) 587-2511
www.introcanada.com

자동차 정비 \$30 오일/필터 교환
예약 및 문의: 613-695-9688

믿고 맡길수 있는 정비소
"안전해얄 내차 제대로 고치세요!"

Onion Auto Service
30 Cleopatra Drive, Unit C, Nepean, On K2G 0B3
www.onionautoservice.com

한국식품

montrealkoreanfood.com
koreanfoods@gmail.com

6151 Sherbrooke.w [본점]
1829 Ste-Catherine w [다운타운점]
514-487-1672

[절인배추 주문 판매]
하루전 3시 이전 주문 요망
최소 주문 반박스

[오타와 배달]
매주 토요일

[본점영업시간]
월-금: 9am-9pm
토: 9am-8pm
일: 11am-7pm

[다운타운점영업시간]
월-토: 10am-10pm
일: 11am-8pm

[김치제조 주문]
포기김치, 막김치
최소주문 반박스

인터랙 또는 현금 구매시
2% 적립
(일부품목은 적립이 안될수 있습니다)



봉지라면 Big 스페셜

6개 들이 신컵 \$5.99

봉지라면 24개 들이 \$19.99

신라면 너구리(매) 김치라면 안성탕면

사발면 12개 들이 \$10.99

육개장사발 신 사발 김치사발

서산간월도 간장게장

휴일 안내
12월 25일
1월 1일은
정기휴일 입니다

2017 고객감사 선물잔치
(몬트리올과 오타와 배달 고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업소 주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명 한국 왕복 항공권 또는 \$1000 상품권
 - 2명 담채 압력밥솥(700\$ 상당)
 - 2명 민들레떡집 \$50 상품권
 - 2명 한국식품 100\$ 상품권
 - 3명 Sushi Q 제공 스시 한판(30pcs)
 - 4명 아시아베리 프리미엄 골드(\$40 상당)
 - 6명 한국식품 20\$ 상품권
 - 10명 홍삼절편 200g (\$40 상당)
 - 20명 황금 햅쌀(40Lbs)
 - 50명 천하일미 햅쌀(15Lbs)
- ***경품잔치에 상품을 후원해 주신 한국식품 후원업체인 민들레떡집과 Sushi Q, 그리고 로젠택배에 감사드립니다***

응모기간: 12월 2일 부터 12월 31일 저녁 6시까지
응모방법: 50불 구매당 경품권 1매 지급
추첨일: 12월 31일 6시 이후 매장을 찾아주신 고객께추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1월 3일 이후 홈페이지와 1월 6일 뉴스위크 한국식품 광고란에 발표합니다
*****항공권 세금은 당첨자 부담*****

2018년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식품이 되겠습니다

청정원 바삭튀김가루 바삭부침가루 \$1.99

연말연시 고마운 분께 드리는 품위있는 고급 선물세트

한국 정라북도 신고배 \$29.99/박스
아시아신고배 \$19.99/박스

전통약식

- 농협 6년근 홍삼진액 \$73.99
- 종근당 천종산삼배양근 \$37.49
- 순수 석류즙 \$43.99
- 고이담은 흑마늘 진액 \$27.99
- 도라지 참배즙 \$39.99
- 순수 배 도라지즙 \$28.99
- 종근당 천종배양근삼정 \$79.99
- 한국 상주 꽃감 \$29.99
- 려,함빛 극손상케어세트 [샴푸4+린스] \$59.99
- 려,청아 두피 딥클린징 세트 [샴푸2+린스] \$59.99

청정원 어묵 스페셜 콜라잡아 2팩 \$3.99

청정원 부산 종합어묵 500g
부산 사각어묵 400g
다용도 붕어묵 400g

아직도 묵은쌀 드시나요?
이젠 **행복쌀**을 드세요

황금햅쌀 \$29.99
현미찰쌀 \$15.99
반반미햅쌀 \$16.99
5분도미 \$13.99
찰쌀 \$15.99

전통 화과자 세트 \$25

뚜껑형 180L \$1449+Tx+운송

뚜껑형 221L \$1849+Tx+운송

결혼식, 장례식, 생일상, 동창회
각종 모임 음식
한국식품 웨프에게 맡기세요

NEW 한국산 전기요 \$49+tx
일하실분 구합니다

\$17.99 수라상 김치 5kg

\$28.00 햇 고구마

한국식품 김치병(4.4L, 2L) 깨끗한 빈병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개당 50센트

한국식품 내 로켓 택배 건강식품 코너 아시아베리, 각종 다이어트 저지방식품
514-487-5104

유한양행 매치머리용 천연머리용 샴푸
매되는 그린

한국식품 컴퓨터 수리서비스 514-573-2334
오늘 맡기고 내일 찾아주세요

이사 514 994-1743

김치 냉장고 담채 180리터 \$1499+Tx+운송비

김치 냉장고 담채 180리터 \$1499+Tx+운송비